



9月19日
신바우서관 3층 멀티미디어실
6시부터

KIC
영어와 친해지길 바래

KIC
영어와 친해지길 바래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영서

억새는 강한 줄기가 2m 이상까지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9월 초경에 줄기 끝에서 송이 꽃술이 모여 고깔 꽃술을 이루고 피는데, 색깔은 옅은 밤색이거나 연보라색이다.

우리 학교가 성서로 이전해 오던 초창기에는 교정 동남쪽 늪지(현 keimyung Art center 신축지 근처)에 군락을 이루어 살고 있었으나, 점차 사라지게 된 것을 학교의 교직원 선생님들이 Adams Chapel 뒤 언덕길에 옮겨 심어 놓았다.

이제는 언덕 위에 새로운 군락을 이루어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늦여름~초가을에는 언덕길 양 옆으로 솟아오른 억새풀의 연보라색 꽃술이 장관을 이룬다.

Miscanthus

Miscanthus is a strong stemmed, reed-like plant that lives in wet lowlands as well as in high hills for many years and can grow taller than 2 meters in height. In early October, the plant flowers and its fuzzy pistils and stamens turn from white to light purple.

When the University first began to move to the present campus, the south-eastern corner of the campus, near the keimyung Art center, was a wetland field of miscanthus plants. Slowly, however, the plants began to wane and almost disappeared.

But around the turn of the millennium, the University staff members transplanted the endangered plant along the roadside on the hill behind the Adams Chapel.

Miscanthus has now become one of the most vigorously flourishing plant from on campus,

and the fantastic light purple petals against the backgrounds of the blue skies are an autumnal wonder to behold.



포지 이야기

지역 최초 전 교육과정을 영어로 강의하는 KIC 재학생들이 가을 축제기간 중 '영어와 친해지길 바래' 라는 캐츠프레이즈 아래 이색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발행 겸 편집인 : 이진우 | 발행일 : 2007년 10월

발행처 : 계명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팀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번지

전화 : 053)580-6031~4 팩스 : 053)580-6035 E-mail : hongbo@kmu.ac.kr

제작 : 밝은사람들 홍보실닷컴 053-652-5700



2007. Vol 48.

Contents

04 계명의 전당

06 KM 갤러리

사진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Come into the Spotlight

08 두드림

'2대에 걸친 후학사랑' 정규진 회장, 계명대에 발전기금 5억원 기부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말아야" - 이인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장

12 I♡계명인

"우리무용 세계무대에도 알아줍니다" - 최두혁 대구시립무용단 예술감독(무용학과 86학번)
"러시아에 반해서 꿈을 키웠지요" - 강성현 · 김정아 · 김정실 동문

16 K-Up 리포트

제2의 빌게이츠를 키우다 - Microsoft사와 손잡고 KIC Microsoft IT전공 신설
세계 최고 게임특성화 대학 디지펜공대와 게임·모바일콘텐츠학과가 만나다
미래의 공간문화를 창조하는 전인적 글로벌 디자인 리더 양성 - 미술대학 실내환경디자인과 신설
중국이 온다 - 계명대 공지아카데미

24 Issue & Issue

"이제 한국사람 다 됐어에~" - 케이티 베일리 한국문화정보학과 4년

26 연구실에서

뉴턴적 패러다임 VS 에디슨적 패러다임 - 임현우 시각디자인과 초빙전임강사

28 나도 계명인

영어실력 좋아졌다는 말에 힘이 불끈 솟아요 - 이정애 관광경영학과 4년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 한국 - 후지이 유타(Fuji Yuta) 영어영문학과

30 그냥 걸었어- [Street Inter뷰]

학력위조, 도대체 왜?

32 行素 산책

한·당시대 보물 325점이 쏟아진다 - 中國국보대대전

34 문화코드를 읽어라

책 한 권과 차 한 잔이 어우러진 젊음의 놀·이·터 - 북카페

36 열정, 움직이다

에딘버러, 그 곳에서 계명인의 열정 휘날리며

38 그 곳이 좋다더라

'천년 왕국 신라'가 경주에 부활했다 - 신라미술레니움 파크

40 쓰~음 흠어보기

My Pride 계명대, 이래서 최고예요!

41 무한 건강 스케치

건강한 수면법, 신데렐라에게 배우세요~

42 계명 News+

44 피플 파워

46 동산의료원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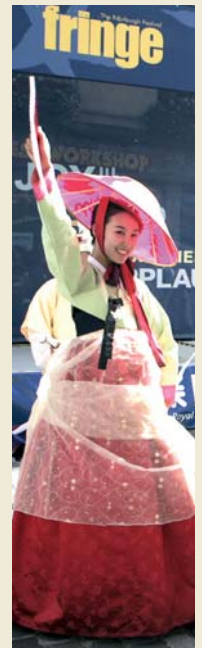
48 모교 사랑 - 발전기금 조성안내

50 Come Here! - 입시안내

03



Kimyung University News





Самые добрые пожелания кенё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Я рад тем новым шагам, которые есть у нас с Россией.

Александр П. Ивешентсов
Посол России в Кенёв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15 августа 2007 г.

글랩 이바셴초프(Gleb Ivashentsov) 주한 러시아연방 대사 _ 3. 15.
〈러시아의 대 아시아 정책 및 한러 관계사〉 특강



With admiration and gratitude and with the hope to establish a good cooperation with the university,

Delfin Colome,
Ambassador of Spain
20/3-07

스페인 델핀 콜로메(Delfin Colome) 대사 _ 3. 20.
〈피아노 치는 대사님의 한국과 스페인 이야기〉 특강



Herzlichen Dank für den freundlichen Empfang und die besten Wünsche für einen weiteren erfolgreichen Zusammenarbeit - Professor Lee soll besonders Dank für die aktive Förderung der europäischen - koreanischen gemeinsamen Forschungszusammenarbeit.

Norbert Baas, Deutscher Botschafter
8. Mai 2007

노버트 바스(H.E Norbert Baas) 주한 독일 대사 _ 5. 8.
〈The EU—a knowledge-based society in a global world〉 특강



李院長이 재직하시어 경매대학교가
다들 잘 운영이 있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종하 유치위원장
2007. 4. 6. 유종하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종하 유치위원장 _ 4. 6.



陳院長을
대변하여
한국대학
대표로서
축하합니다.

陳永澤 敬啟
2007. 4. 18.

진영작(陳永澤) 주한 대만 대표부 대표 _ 4. 18.
〈대만 해협 양안 관계〉 특강



貴校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007. 10. 17
科學部 金雨植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특강 _ 10. 17.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기술정책의 방향과 과제〉 특강



강연의 시간을
극히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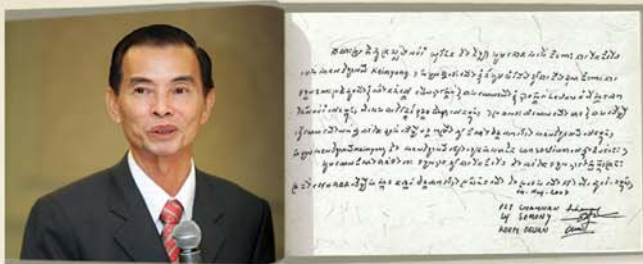
계명대학교의 많은
발견을 기원합니다.

2007. 9. 19. 정몽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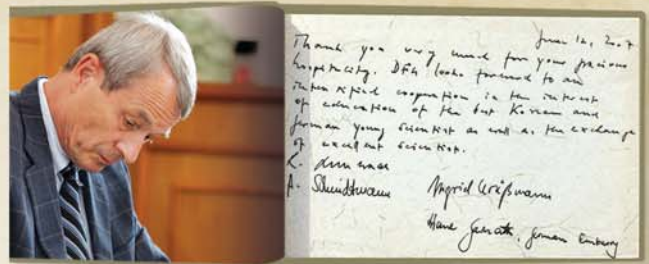
정몽준 국회의원 _ 9. 19.
〈탐험심과 모험심 그리고 정치〉 특강

2007학년도 국내·외 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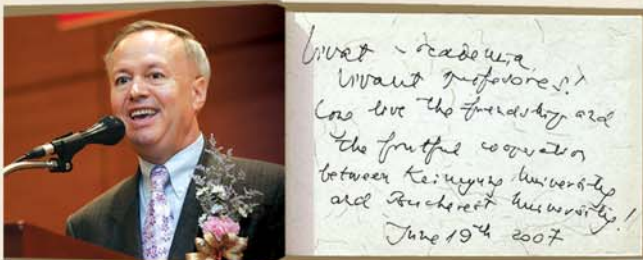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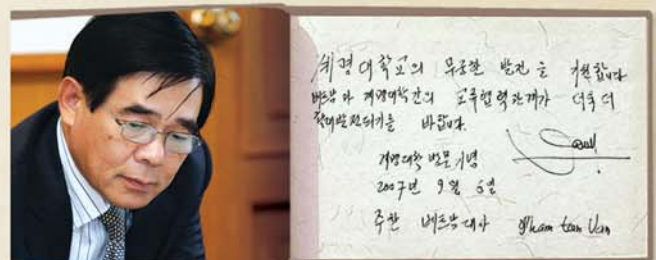
핏 참난(Pit Chamnan) 캄보디아 교육부 장관 _ 5. 14.
한국지역대학연합(RUCK)과의 협정 체결



그룬 발트(Reinhard Grunwald) 독일연구협회(DFG) 사무총장 _ 6. 12.
교수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진행관련 협의



발레리우 아르테니(Valeriu Arteni)
주한 루마니아 대사 _ 6. 19.
〈루마니아와 한국〉 특강, 한국·루마니아협회 창립총회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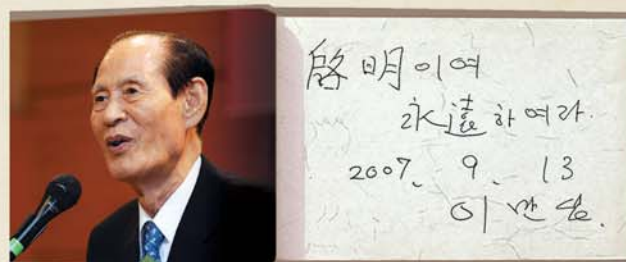


팜 티엔 반(Pham Tien Van) 주한 베트남 대사 _ 9. 6.
〈수교 15주년을 맞는 한국과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 특강 및
한국·베트남협회 창립총회 참석

계명대학교를 찾은 인사들의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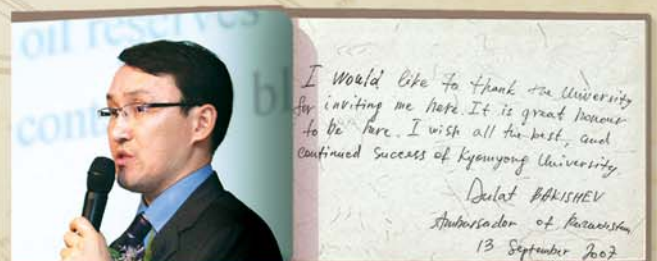
권재진 고검장 _ 6. 26.



이만섭 전 국회의장 _ 9. 13.
한국·카자흐스탄협회 창립총회 참석



수전 카스트렌체(Susan O. Castrence) 주한 필리핀 대사 _ 7. 26.
한국·필리핀협회 창립총회 참석



두랏 바키שב(Dulat Bakishev)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_ 9. 13.
〈New Kazakhstan in the New World(새로운 세계 속의 새로운 카자흐스탄)〉
특강 및 한국·카자흐스탄협회 창립총회 참석



01

‘제 28회 현대 미술대전’
사진부문 1위 (대상)

[어디로
가야 하나]

최금옥 사진디자인과 4년

여행과 봉사활동이 취미로 세계 곳곳 안 가본 곳이 없었던 만학도 최금옥 학생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에 눈을 돌려 철도역을 찾아 다녔다. 전국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철도역을 찾아 풍경을 담기 시작해 올 들어 둘러본 철도역만 모두 12곳. 서울(팔당, 일산, 구둔역), 충청(심천역), 강원(삼척역), 전라(울촌역), 대구(동촌역), 경북(가은역), 부산(송정역) 등 전국을 누비며 기울인 최금옥 학생의 노력은 마침내 대상 수상작을 낳게 했다. 오래된 역의 풍경과 갈라진 레일 노선을 통해 방향을 잃은 인간의 방향과 선택에 대한 갈등이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다.



[老妄 로망
Romance]

정민영 사진디자인과 4년

02

‘전국문화사진 공모전’ 1위(금상)

전국에서 출품작이 1,000여점이 넘는 정도의 큰 규모를 자랑하는 ‘제 8회 전국문화사진공모전’에서 1위 정민영 학생을 비롯해 배정환(사진디자인과 3년) 학생이 3위(동상)를 차지하는 등 13명이 특선, 입선에 대기 입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진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Come into the Spotlight

03



뉴욕 원소 페스티벌
1위(최우수상)

[대기오염으로 인해
한해 6만명이 사망
합니다]

이재석 시각디자인과 01학번

계명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지난해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SUA)'로 유학을 간 이재석 동문이 <뉴욕 원소 페스티벌 '이노베이티브 마케팅 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다. 뉴욕의 '원소 페스티벌'은 간 국제 광고제와 런던의 D&Ad와 함께 세계 3대 광고제로, 올해는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주제였으며 세계 28개국에서 2천여 명 이상의 신세대 광고인들이 참가했다.



[Double
Player]

김본경 산업디자인과 3년

04

'카비전 대학생 카디자인 공모전' 1위(대상)

김본경 학생은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주최 '카비전 대학생 카디자인 공모전'에서 'Double Player'라는 제목의 작품을 출품, "친환경적인 연료전지차의 단점으로 꼽히는 성능을 가상 레이싱 게임을 통해 해결하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본 스케치 실력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으며 대상(1위)을 수상했다.

계명대 사진디자인과·시각디자인과·산업디자인과가 각종 공모전, 대회에서 최고 평가를 받고 있다. '98년 개설된 이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진디자인과는 동 분야 권위 있는 한국광고사진가협회(KAPA) 사진 공모전에서 최근 6년 동안 연속해서 상위에 입상되고 있다. 또한 시각디자인과는 국내 디자인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실무경험을 지닌 교수진의 국제적인 교육과 더불어 미적, 기능적 창조력을 겸비한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으며, 산업디자인과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일 필요한 오브제를 창조하며 생활과 문화의 중심에 유독 서 있다. 앞으로도 이들의 활보가 주목된다.

‘2대에 걸친 후학사랑’ 정규진 회장 계명대에 발전기금 5억원 기부

제주축산개발(주) 정규진 회장



“후학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평생 살다 가신
선친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나 자신에게 다짐해왔던 약속을
실행에 옮긴 것 뿐이지요”

재력이 있다고 아무나 이런 일을 쉽게 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뜻이 아무리 숭고하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아무나 이를 받들어 바르게 실천할 수 있을까?

후학사랑에 남달랐던 선친의 뜻을 이어받은 아들이 거액의 대학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제주축산개발(주) 정규진 회장.

정 회장은 한 평생 후학사랑을 위해 헌신한 선친의 뜻을 받들어 지난 9월 계명대를 찾아 거액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정 회장의 선친 故정재호 박사는 계명대학교 설립 초기부터 부인 박명교 여사와 더불어 20여 년간 법인이사로 봉직하며 대명캠퍼스에 여학생 기숙사와 교수 연구관을 건립, 기증했을 뿐 아니라 1992년에는 110억원의 부동산을 내놓아 성서캠퍼스 조성에 큰 힘이 되어준 공로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정 회장은 “후학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평생 살다 가신 선친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나 자신에게 다짐해왔던 약속을 실행에 옮긴 것일 뿐”이라며 소감을 밝히고 “학교 발전과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대를 이어 식지 않는 후학사랑을 보여줘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이날 계명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학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신일희 이사장, 이진우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등 100여명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미국에서 건너온 정회장의 아들(중민 씨)내외와 손자 등 4대의 가족들이 행사장에 나란히 입장,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의양 정재호 명예이사장은 전 삼호그룹 회장으로 1966년 대명캠퍼스 교수연구관 증축 시 재정적 후원을 비롯해 1993년 부산 문현동 소재 토지 21,879㎡를 기증함으로써 매각대금 110억원을 건립기금으로 내 놓았다. 계명대학교가 성서캠퍼스로 이전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까지 정 명예이사장의 기금이 초석의 역할을 담당했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교 초창기부터 법인이사를 역임, 제2음악관의 전신인 여자기숙사와 교수연구관(의양기념관) 건축비를 전액 부담하셨는가하면 전 교수연구실에 신식 난방 기구를 기증하기도. 현재 우리대학에서는 그분의 뜻을 기리고자 경영대학 건물을 ‘의양관’으로 명명하였으며, 건물 내에 의양 선생님의 흉상과 더불어 ‘의양기념실’을 두고 있다. 게다가 부인 박명교 여사는 본교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의양 선생과 더불어 우리대학 발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성서캠퍼스 학생 기숙사 건물을 ‘명교생활관’이라 이름 지어 그 뜻을 기리고 있다. ✨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잠시나마 정든 교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을 맡게 되어 영광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감은 참으로 막중합니다. 게다가 계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는데도 기여를 해야겠다는 의무감 또한 여간 무겁지 않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은 대구·경북 지역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화시키고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9월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DGIST의 출범은 지
역의 많은 국회의원, 교수, 언론인, 지역민들의 끊임없는 열망과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DGIST의 설립 과정에 힘써 준 많은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고 미래에 큰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철저히 원칙에 입각,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으로 DGIST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DGIST는 대구·경북의 KIST로서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지역민들이
이 기관의 설립 배경이나 그 역할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체
성을 조속히 확립하는 한편, 글로벌 스타 연구원들을 대거 유치하고 기존 연구원에 대한 연구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
갈 것입니다. 이렇듯 획기적이고 다채로운 선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DGIST를 명실공히 정상급 글로벌 연구기관으
로 키울 것입니다.

즉 후발 연구기관이면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설립된 외부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낙후된 유
명무실한 연구기관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기관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대외경쟁력을 낮추는 것이
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DGIST가 선진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그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고 세계 초일류의 연구기관으로 힘차게 뻗
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계명인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한편 이를 계기로 계명인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계를 두지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성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성이면서, 국내파에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하
지만 그것이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현실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
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과학기술분야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바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명
인 여러분도 스스로를 한계 속에 가두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Profile_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교환교수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미생물자원연구센터 사업 유치
대구신기술사업단장 역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역임
現, 계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과기부 예산심의위원, 산자부 산업기술발전위원회 위원
재경부 지역특화산업 특구위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장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말아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장 이인선





» I ♥ 계명人

rock

ACTIVE AND
LIVELY SHOW THROUGH
LIVE MUSIC!

DRAMATIC AND
CONTEMPORARY DANCE!

THE HOPEFUL MESSAGE
WHICH CAN FILL
THE HEART OF MODERN PEOPLE.

PREVIEW 3rd-4th Aug 2007 18.30
SHOW 5-10th Aug 2007 18.30

PUPPET

DAEGU CITY MODERN DANCE COMPANY

앞으로 2년간 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로 재위촉된 최두혁 감독.
제19회 동아콩쿨 금상, 이사도라상을 받았으며
지난 8월에는 세계최대예술축제인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여해,
최고 평점을 받는 등 대구시립예술단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던 오후,
안무 지도 중인 최감독을 만났다.

12

Keimyung University News

“우리무용,
세계무대서도 알아줍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최두혁 (무용학과 86학번)



— 시립무용단 감독으로 재위촉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구시립무용단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

국·공립무용단체 중 국내유일의 현대무용 단체인 대구시립무용단은 1981년에 창단된 이래 해마다 2회의 정기공연과 30회 이상의 임시 및 특별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5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구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무용단으로 발돋움하고자 현대무용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지요.

— 지난 8월에는 세계최대예술축제인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여하셨는데.

현지에서 1천여 명이 관람한 ‘꼭두각시’는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고독과 소통을 역동적인 몸짓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견우와 직녀를 통해 희망을 지키려는 몸짓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 공연하면 누구를 통하든지 부탁도 하고 관객동원도 해야 하는데 첫날 도착해서 우리끼리 공연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했었지요. 다행히 매진도 되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아서 손도 잡아주고 마지막 날 커튼콜을 20분 동안 했었지요. 기립박수를 받고 눈물을 흘린 단원도 있었어요. 무대 위에 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열정에 뜨겁게 호응해주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 여러 작품들 중 에든버러에서 ‘꼭두각시’를 무대에 올린 이유는.

대구공연 때 관객 반응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외국공연의 경우 순수 객관적인 관객이니까 에든버러에서의 반응을 지켜보았지요. ‘꼭두각시(Puppet)’는 프리뷰 공연을 포함해 모두 8회의 공연을 펼쳤는데 첫 공연에선 관객이 50여 명에 불과했지만 공연이 막바지로 흐르면서 객석은 꽉 찼습니다. 현지 주민은 “한국과 스코틀랜드의 억압받은 역사가 비슷해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올해 내가 본 공연 중 최고”라고 평했고, 공연을 본 한 한국 교민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허허벌판에서 발가벗고 정면 대결한 결과였지요.

— 무용을 전공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했던 순간은

무용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보람있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안무를 기획할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결론은 반드시 ‘희망’적으로 표현하지요. 지난 1991년부터 육완순 선생님이 안무하신 ‘슈퍼스타 예수그리스도’에서 예수역할을 지금까지 맡고 있어요. 처음에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시 남자무용수도 별로 없었거니와 그만한 대작이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지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역에 몰입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 대구는 ‘국제춤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

내실 있는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많은 국내외 행사들이 대구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행사도 있긴 하지만 너무 극장위주의 큰 규모로 끝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항상 거리 공연이 이루어지는 스트리트도 만들고 기간이 길지는 않더라도 대학로처럼 소극장들이 모여서 젊은이들의 실험적 이면서도 감각을 키우는 그런 공연문화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목표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해외 진출 기회를 보다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단원들도 이번 에든버러에 가면 서 공부를 많이 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계 수준에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입니다. 또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어요. 다음에 해외공연을 한다면 현지에 맞는 철저한 준비로 관객몰이에 성공할 전략도 생겼습니다. 한국무용을, 나아가 대구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 예정입니다. 🇰🇷



“러시아에 반해서 꿈을 키웠지요” 국가공무원 출입국관리직에 합격한 강성현 · 김정아 · 김정실 동문

이순신은 남해 바다에서 왜적의 침입을

막아냈고, 을지문덕은 수나라로부터 고구려를

지켜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누가

지킬까? 대한민국 제2의 국경에서 우리를 위험

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직에서 국내를 출입하는

외국인 심사를 맡고 있는 계명인 3인방을 만났다.

14



러시아어문학과에 입학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된 학생들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러시아에
다녀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 '3+2 복수학위제' : 3학년 1학기까지 계명대에서 공부하고 그 후 2년 동안은 러시아 베랴르부르스크국립대 학교에서 유학한 후 두 대학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
- || 교환 학생 제도 : 매년 5명씩 1년간 러시아 최고의 대학들로 갈 수 있으며 교환학생들에게 등록금은 물론이고 기숙사까지 무료로 제공.
- || 3학년 2학기를 러시아 대학에서 공부하는 '현지학기제' 운영.
- || 하계방학기간 중 한 달 동안 러시아현지연수 기회 제공.

__ 고난이 없으면 학문도 없다 (Без муки нет и науки.)

“출입국관리직이란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국내를 오고 갈 때 그들이 한국에 체류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 밖에도 외국인의 체류, 국적, 귀화, 재외동포, 난민, 출입국사범처리 같은 다양한 업무가 있지요. 요즘 외국인 체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업무 분야 역시 더욱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8월, 국가공무원 출입국관리직 특별 채용 시험에 나란히 합격한 러시아어문학과 3인방, 강성현(95학번)·김정아(99학번)·김정실(01학번) 동문. 토익이다, 토플이다 해서 영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요즘, 러시아어를 어떻게 공부하게 됐을까. “1학년 때 선배들 따라 자비로 러시아를 가게 됐어요. 그 때 러시아의 아름다움에 반했지요”라는 김정실씨. 광활한 땅, 막대한 자원, 여유로운 서민들의 생활, 도스토예프스키, 푸슈킨, 고골, 차이코프스키 등...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꿈을 펼쳐보고 싶었다.

__ 맨 처음 구운 팬케익은 항상 엉성하다 (Первый блин комом.)

러시아가 좋다고 공부마저 즐거웠던 건 아니다. “처음엔 글자인지 그림인지도 구분이 안되더라구요. 러시아어 사전도 제대로 없는데다 영어처럼 인터넷 사전 검색도 되지 않아 많이 힘들었어요”라는 김정아씨. 10여개가 넘는 복잡한 격변화에도 문법에 신경 쓰면 발음이 틀리고, 발음에 신경 쓰면 문법이 틀려 엉망이 되곤 했다. 하지만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자비를 투자해 러시아를 다녀오면서 러시아어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 처음엔 대화도 안 되고 낯설어 힘들었지만 외국친구들을 통해 회화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김정실씨는 하바롭스크 극동 대학에 1년간 연수를 갔을 때 말도 통하지 않고 외롭고 힘들어 매일 TV를 틀어놓고 울기만 했다. 하지만 러시아 친구들과 매일 대화를 시도하면서 하루에 한가지씩의 상황을 정해 연습했다. “오늘은 약국 직원, 내일은 환자, 식당 주인 등 일상생활을 상황으로 설정해 자주 쓰게 되는 대화 내용을 혼자 작문하고 공부했어요. 시장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말을 받아 적고 따라하면서 실력이 많이 좋아졌지요”라고 털어놨다.

__ 일찍 일어나는 자에게는 신이 모든 것을 준다 (Кто рано встаёт, тому бог подаёт.)

그들에게 후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러시아어를 전공하고 공부했지만, 좁은 취업문 때문에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적었고, 대우를 받지 못해 서러웠던 적도 많았다. 하지만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는가?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평소에 꾸준히 러시아어를 공부했기에 갑자기 발표된 출입국관리직에 러시아어 특채로 응시할 수 있었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계명의 3인방이 나란히 합격할 수 있었다. “러시아를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은 없어요. 취업의 문이 좁긴 하지만, 좁은 만큼 저희에게 러시아어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노력하고 준비했기에 지금의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3인방. 끊임없이 스스로를 갈고 닦았기에 그들에게 다가온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__ 암탉은 한 번에 낱알갱이 하나만을 먹지만, 차츰차츰 배를 채운다 (Курица по зерну клюёт - и сыта живёт.)

아직 ‘신입’이라서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만도 벅차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만큼이나 크고 웅장하다. “대한민국 영사라는 이름을 달고 러시아에 파견되고 싶어요”라는 김정실씨.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을 만나는 일이니만큼 다른 언어를 공부해 외국인 정책 기획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강성현씨. 출입국관리직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되고 싶다는 김정아씨. 한 번에 하나의 낱알갱이로 서서히 배를 채우는 암탉처럼 꿈을 향해 이제 막 첫걸음을 댄 그들.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지킴이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대표 계명인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





Keimyung International College

국제경영, 국제관계전공에 이어 Microsoft IT전공 신설 제2의 빌게이츠를 키우다



16

Keimyung University News

Microsoft Korea, 계명대학교
산학협력 양해각서 체결
2007. 5. (화) 대회의실

계명대가 국내 최초로 세계적 기업인 Microsoft사와 손을 잡았다.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운영될 'Microsoft IT전공'이 바로 그것. 비야흐로 세계화를 향한 빌게이츠의 창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KIC의 비전처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우수한 기술력과 KIC의 인재들이 만들어 갈 첨단 IT 미래가 기대된다.

영어는 Base, 교육은 Best _ Microsoft IT 전공

계명대와 한국Microsoft사는 차세대 정보환경의 발전과 국내 IT분야 인재 양성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MS사가 국내 대학과 맺는 산학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계명대는 영어전용 학부 KIC에 'Microsoft IT전공'을 신설해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입학정원 30명인 이 학과는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한다. Microsoft사 임직원들의 정기 특강과 우수 학생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 마이크로소프트 및 협력회사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IT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입학생에게는 헤드스타트 program, 해외 연수와 국내·외 인턴십의 기회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또한 영어 특별 교육 프로그램과 다국적 기업 전문 경영인 양성을 위한 제2외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진로 탐색 지도를 위해 전공 담임제를 통한 특별지도도 받게 된다.

Microsoft사와 손잡은 KIC의 특별한 미래

Microsoft사는 Microsoft IT 전공에 전폭적, 전략

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미국 코넬 대학교와 조지아공대, 영국 노팅헴 대학교, 스코틀랜드 앙구스 칼리지 등 세계 유수의 공과대학들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커리큘럼 리소스 킷(CRK)과 MS운영 체계의 주요 소스 일부도 계명대에 지원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강의,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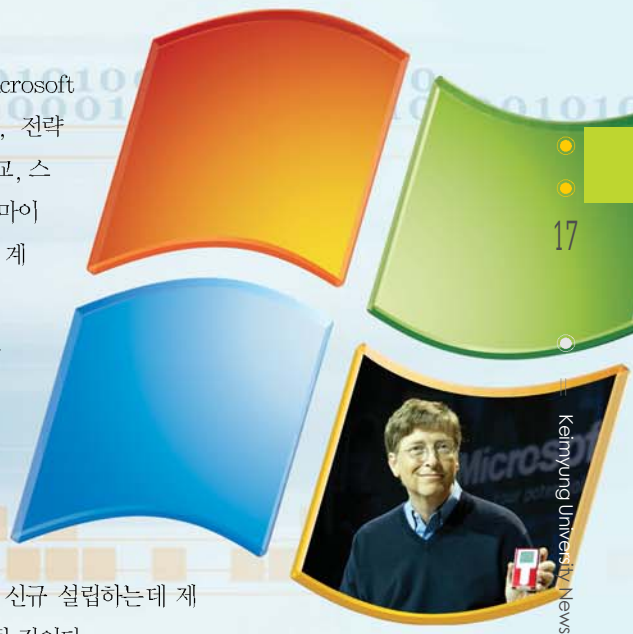
한국Microsoft사에서는 강좌 개설을 위한 공인 교과과정 및 교육 실습실 지원, Microsoft 임직원 및 업계 전문가의 정기 특강 지원,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집중교육 등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MS 인턴십, MS의 유력 협력회사 연합회를 통한 인턴십, 국제학생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참여 등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우수 학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해주기로 했다.

더욱이 한국Microsoft사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국내 타 교육기관에 신규 설립하는데 제한할 방침이어서 Microsoft IT전공은 향후 IT분야에서 새로운 획을 그게 될 것이다.

The bridge to the world! _ 세계를 향한 계명의 IT!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국제경영전공(Major in international Business)'과 '국제관계전공(Major in international Relations)'의 2개 전공분야로 설립된 KIC. 지난 3월 60명의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지역 속 '세계대학'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교수들은 학문적 지식은 물론 각국의 문화를 인정하는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열정과 국제적 마인드를 갖고 언어와 경영 능력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다. 수업은 물론 학교 내에서의 모든 대화는 영어를 사용하기에 이들에게 '영어'는 모국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더욱 규모를 키우고, 인재를 육성하여 국내가 아닌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명인을 만들고 싶다는 KIC.

이에 Microsoft IT전공은 국내 IT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차세대 정보 환경의 발전을 약속할 것이다. 글로벌 IT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발돋움할 계명. 그 험난 발걸음을 기대해본다. 현재 수시 2학기 모집을 마쳤으며 오는 12월에 정시 모집을 실시한다. 



“넌 게임하니? 난 공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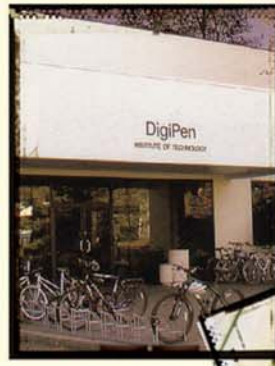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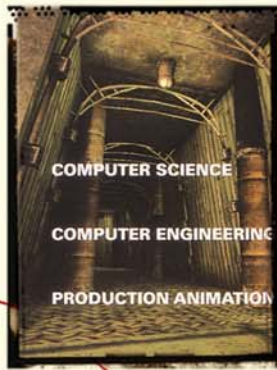
세계 최고 게임특성화 대학 디지펜공대와 게임·모바일콘텐츠학과가 만나다

‘게임계의 하버드’라 불리며 게임 분야의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디지펜공대(DigiPen Institute of Technology).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등을 비롯한 세계적인 IT와 CT기업들 및 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계명대 게임모바일콘텐츠학과와의 복수 학위 과정 협약이 체결됐다. DigiPen - Keimyung Special Program은 싱가포르에 이어 대한민국의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닌텐도가 설립한 세계 최고의 게임 특성화 대학인 미국 디지펜공대 교수진이 직접 강의. 세계 최고 게임 전문가를 양성한다.

DigiPen

Institute of Technology





게임·모바일콘텐츠학과



DigiPen-Keimyung Special Program

계명의 특성화, 디지펜을 감동시키다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협약을 체결하고자 수년간 온갖 조건을 내걸었지만, 단번에 거절했다는 디지펜공대. 계명대의 열정과 힘찬 이상을 보았기 때문일까. 협상 6개월 만에 복수학위과정을 체결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과정이 실시된다. 학생들은 게임 분야에 대한 최신 기술과 지식을 얻고 디지펜공대의 우수한 교수진들의 강의를 직접 듣게 된다. 이는 싱가포르에 이어 대한민국의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고 게임전문가를 양성 할 방침이다. 그래서 모든 전공수업은 영어가 기본. 졸업하게 되면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다.

최고의 교육으로 고급 인력을 양성하다 _ DigiPen-Keimyung Special Program

DigiPen -
Keimyung

Special Program은 4.5년간 30명의 소수정예로 운영된다. 입학 후 첫 학기는 계명대학교의 교양과목 및 복수학위 과정에 필요한 예비과목을 이수하게 되고, 그 후 2년간의 모든 전공과정은 디지펜공대 교수들이 국내에 상주하며 직접 영어로 강의한다. 이는 미국 디지펜공대 교과과정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국내에서 2.5년(5학기)을 마친 학생은 미국 시애틀 근교 레드먼드시에 있는 디지펜공대에서 나머지 2년을 수학하게 되고 졸업 후엔 계명대와 디지펜공대에서 각각 학사학위를 받게 된다. 특별한 복수학위 프로그램인 만큼 양질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통해 최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는 12월에 2008학년도 정시모집을 실시한다.

국제연구소형 기업으로 거듭나다

디지펜 공대 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옮겨오게 될 게임모바일콘텐츠학과는 복수학위제가 실시될 내년부터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다. 미국의 게임 기업과 연구소가 국내로 그대로 옮겨와 교육과 함께 게임 회사가 운영된다. 이른바 「국제연구소형 기업」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기업에 바로 적용하고, 기업에서는 그에 대한 게이머들의 반응과 장단점을 그때그때 체크하며 학생들의 실력과 기술을 점검한다. 정규과정을 배우는 학생들도, 기업들도 level up이 되는 것. 또한 1학년부터 현지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미국 현지 대학과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디지펜공대 학생들과 장벽이 없다. 졸업 후엔 디지펜공대 졸업생들과 같이 닌텐도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취업을 할 수 있다.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확실한 길을 제시하고, 확실한 목표 아래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슈퍼마리오나 닌텐도처럼 게임에는 국경도, 경제도 없다. 그래서 게임에는 한국적, 미국적인 개념이 따로 없다. 최신 기술력으로 최고의 게임을 만들었을 때 전 세계인을 즐겁게 할 것이며 게임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이다.

“게임·모바일콘텐츠학과는 향후 5년 내에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자체 교육과정을 갖게 될 것”이라는 김태식(미디어아트 대학 게임·모바일콘텐츠학과) 교수의 전망처럼 10년 후쯤엔 국제 게임산업을 이끌어가는 빛나는 계명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미래의 공간문화를 창조하는 전인적 글로벌 디자인리더 양성 미술대학 실내환경디자인과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 무한공간을 통해 삶이 진행되고 거기에는 삶의 함축된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실내환경디자인은 무한공간과 인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공간디자인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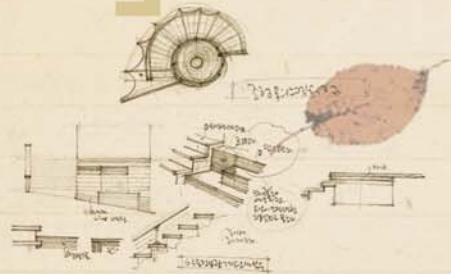
미래사회의 창의적 공간 창출을 위한 인테리어디자인, 환경디자인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계명대학교 미술대학에 실내환경디자인과가 2008학년도에 새롭게 신설된다.

미술대학 실내환경디자인과

Interior & environment design

Interior &
environment design



2008학년도에 신설되는 미술대학 「실내환경디자인과」는 공간과 인간 그리고 삶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공간디자인을 배운다. 미래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공간 창출을 위한 인테리어디자인, 환경디자인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인간·공간·환경의 제반 문제를 보다 다각적으로 해석하고 종합하여 진정한 가치의 새로운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폭넓은 학제적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합리적 디자인 사고 능력과 독창적 조형능력을 함양시켜 21세기 공간디자인 흐름의 시대정신을 이끌어 갈 미래 실내환경디자인 선진국의 주역이 될 디자이너를 양성하고자 한다.

실내환경디자인과의 교육내용은 △실내디자인, 공간디자인, 공공디자인, 환경디자인 분야 전공 교육 △인간성·창의성·전문성을 겸비한 복합적 디자이너 양성 교육 △학과기초교육, 전공기반교육, 전공핵심교육, 전공심화교육, 현장교육 등이다.

미술대학 이원희 학장은 “실내환경디자인과는 변화하고 진화되는 사회적 환경과 요구에 부응하는 인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전인적 디자인 리더로서 사회가치, 인류애, 환경보존의 공간디자인을 탐구해 나간다”면서 “국적있는 디자인문화 창출을 위한 우리 문화 정체성의 지속적 탐구, 혁신적·창의적 발상과 예술적 가치의 독창적 조형학습의 현장교육을 통한 실무형 디자인 리더를 배출함과 아울러 글로벌 리더형 국제교육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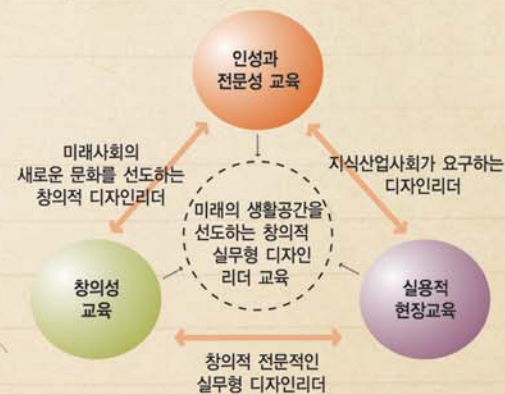
교육과정 편성 방향

- 미래사회가 지향하는 공간 관련 디자인 영역 설정
실내디자인, 공간디자인, 공공디자인, 환경디자인 분야
- 글로벌, 국제화, 지식기반정보사회, 디지털 등 변화와 진화되는 사회적 환경과 요구에 부응하는 인성과 전문성 고려
- 전인적인 디자인 리더
- 혁신적, 창의적 디자인 발상과 독창적 조형 학습
- 인턴, 디자인세미나 등 현장 교육으로 실무형 디자인 리더
- 경쟁력, 차별화, 특성화, 국제적 등 디자인 리더

졸업 후 전망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 / 건축설계사무소 / 가구디자인업체
실내디자인설계 / 부엌 및 가구 디자인 업체 / 주택 연구소
디스플레이어 / 국영기업체 / 프리랜서

교육목표 체계도



■ Main concept
· 자연친화적 친환경 디자인
· 현대적 미니멀리즘 디자인
· 기능성 이미지와 디자인 컬러
· 큰 Mass와 작은 여백
· color point



시각적
지각과 감각
접촉과 통각
100% 지각
시각

인공적인
자연적
인공적
자연

중 국 이 온 다 ~

계명대학교 공자아카데미 문 열어

| www.kongzi.ac.kr |

중국정부(한반)가

전 세계에 중국어와 중국문화

보급한다 그 취지로 개설

비영리 교육기구 공자아카데미

2007년 현재 전 세계 50여 국가

163개 대학에 공자아카데미가 설치돼

양평 중등

대구·전북 지역 최초로

계명대가 공자아카데미를 유치

2007년 9월부터 본격 양평에 들어갔다

양평로 양성된 한 중국어 교육과

중국어문제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공자아카데미

中國

啓明大學 孔子學院
Confucius institute of
Keimyung University



탄탄한 공동 기반 위에 | 계명대는 지난 9월부터 중국 교육부와 공동으로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공자아카데미(孔子學院)를 설립,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이진우 총장은 지난 4월 중국 교육부 산하 중국국가한어국제보급위원회(中國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辦公室, 이하 '한반(漢辦)')으로 약칭)에서 위원회의 주임인 쉬린(許琳)과 계명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어 중국 내 협력 파트너인 베이징위엔대학(北京語言大學)을 방문, 추이시량(崔希亮) 총장과 공자아카데미 공동운영 시행세칙에 관한 협정서도 맺었다.

'왕초보'에서부터 '왕고급'까지 | 계명대는 1979년에 전국 최초의 중국학과 개설을 필두로, 1980년 중국어문학과 학부과정, 1981년 중어중문학과 석사과정, 1998년 통·번역대학원 중국어 통·번역 석사과정, 2004년 계명-베이징위엔대 중국어학당, 2007년 중국학과 중국사회과학원 석·박사 복수학위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이러한 초석위에 공자아카데미를 설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중국어 교육과 중국문제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공자아카데미 수업은 '왕초보' 대상의 중국어 입문단계에서는 발음과 성조를 배우고 중국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는가 하면, 원어민 강의 회화 중급과 중고급 수업은 중국 현지에서 학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수준도 기대 이상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HSK어법반, 중급HSK, 고급HSK, 비즈니스 실무중국어 수업 등도 있다. 게다가 장학 혜택도 있는데 입문반의 경우 출석률 80% 이상일 때 수강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또한 주부나 주니어들을 위한 무료강좌도 운영하고 있다.

중국 문화 속으로 | 계명 공자아카데미는 중국 교육부 한반도로부터 10만 달러의 초기운영비와 3,000권의 도서 및 각종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을 제공받으며, 2명의 중국어 원어민 교수 파견과 그에 따른 제반 경비도 지원받는다. 계명대는 공자아카데미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제공하고, 행정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배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조수성

중국센터장, 중국학과 교수

조수성 계명대 중국센터장은 “이번 공자아카데미 설립을 통해 지역민의 수요에 맞는 체계적인 중국어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중국과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중국어 교사를 양성하며, 중국어 능력시험(HSK) 등 다양한 인증시험 및 중국어 경시대회와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도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

공자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

구 분	프 로 그 램 종 류
학술/문화관련	중국관련 학술 세미나, 명사초청강연회 중국문화전시회, 중국어경시대회, 중국문화강좌 등
교육관련	중국대학 학점취득과정, 중국어교사 중국어연구 과정 교원심화학습과정, 중국어회화과정, HSK과정 중국사업가(소호·중견사업가)양성과정, 기업체 및 관공서 출강 방과 후 학교 출강 등
인증시험관련	각종 중국어 인증시험(HSK(한어수평고시), BCT(비즈니스 중국어), YCT(어린이 중국어)) 실시



“이제 한국사람 다 됐어예~”

캠퍼스의 섯노란 은행잎만큼이나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그녀. 파란 눈 깊은 눈매는 분명 외국 인인데 한국인 느낌이 물씬 풍긴다. 요즘 KBS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하면서 한창 뜨고 있는 케이티 베일리(Katia Baillie)를 만났다.

케이티 베일리 뉴질랜드·한국문화정보학과 4년

미녀들의 수다



KBS 2TV-미녀들의 수다를 녹화 중인 Katie Baillie

한국은 느낌이 참 좋아요 | 그녀가 계명대학교와 인연을 맺은 건 지난 2003년 가을. “한국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냥 가슴에 와 닿는 그 느낌이 참 좋아요”(웃음) 그녀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어 어디 있는지도 몰랐었다. 엄마가 영어선생님으로 한국에 오게 되면서, 그녀도 곧 바로 엄마를 따라 나선 것이다. 한국어는 전혀 몰랐다. 지금의 거침없는 사투리를 쏟아내기까지는 그녀에게도 남모름 숨은 노력이 있었다. “시장 보러 가는 길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한국 사람과 직접 얘기하며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문화를 느꼈어요. 일부러 한국친구만 사귀기도 했죠” 해마다 여름, 겨울이 되면 꼭 아르바이트로 어린이 영어캠프에 참가했다. 한번은 문경새재 쪽 작은 시골마을 농암면에 간 적이 있었는데, 시골의 정겹고 수수한 느낌이 가슴 깊이 와 닿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단다. 이처럼 이 나라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부대끼며 ‘한국’을 느끼고 배워왔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좌우명 | 처음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는 참으로 힘이 들었다. 학교 동문 근처에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주인아줌마가 좋아서 ‘엄마’라고 불렀다. 그 때 말은 잘 안 통했지만 ‘한국 엄마가 날 딸처럼 사랑하는 구나’라고 느꼈다. 그래서 한국말을 하루빨리 배우고 싶었고 한국문화를 더 알고 싶었다. “문화를 배우려면 먼저 그 나라 언어를 알아야 해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머라가노!’ 이런 말은 교재에 안 나오잖아요. 저 이제 한국사람 다 됐어예~ 하하하”

초등학교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다녔다. 대구는 그 곳에서의 잊을 수 없는 느낌과 참 많지도 않아 더욱 정이 간다. 할 아버지를 뵈러 영국에 가더라도 하면 으레 대구가 떠오른다. 작년에는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며 바쁘게 보내느라 폐렴에 걸려 많이 아팠다. “그 때 ‘한국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셨다”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한국 엄마의 동생이 의사라서 모든 진료를 무료로 받게 해 줬어요. 휴일에는 직접 집에 와서 링거를 놓아주셨고, 링거를 맞는 동안 가족모두가 친딸 친형제처럼 따뜻하게 제 곁을 지켰어요. 상상할 수 없는 감동. 그 이상이었지요” 그녀에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힘들기 마련. 그것을 참으면 그 상황 안에서 더 큰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고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을 받은 때문일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게 삶의 좌우명이 됐다.

내겐 특별한 한국, 그리고 계명대학교 | 미디어에 관심이 많아 지금은 한국에서 조금씩 그 꿈을 키워가고 있다.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하게 된 것도 지역방송국에 출연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 저도 몰랐어요. 큰 스튜디오라 녹화할 때마다 긴장되지만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 행복해요”

한편 계명대학교의 유학생은 17개국 700여 명. 올해 3월에 개설된 단과대 KIC(Keimyung International College)는 캠퍼스 속의 지구촌이다. 세계화에 발맞추어 나가는 글로벌 계명인이 모이는 곳이다.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글로벌 캠퍼스에 전세계 유학생까지 함께하는 계명대학교는 이제 명실상부 최고의 국제교류 허브대학. 2010년까지 외국인 학생을 전교생의 10%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완공 예정인 국제교육센터를 비롯해 막연한 유학생이 아닌 ‘맞춤형 유학생’ 육성을 목표로 특화된 분야에서 유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언어로 활발하게 교류를 넓혀 나가며 세계 속에 주역이 될 계명인을 그녀의 밝은 표정 속에서 기대해 본다.

Issac Newton

VS

Thomas Alva Edison



뉴턴과 에디슨적 패러다임의 차이는 무엇일까?
'발견' vs '필요에 의한 발명' ?!

뉴턴이 자연 속에서 '진실'을 밝혀냈다면,
에디슨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뉴턴적 패러다임 VS 에디슨적 패러다임

아이작 뉴턴(Issac Newton 1642-1727)은 자신의 인생을 '해변가를 거니는 일'로 비유했다고 합니다. 진리는 이미 대양 속에 들어 있으며, 그것들은 해변으로 밀려와 사람들에게 '발견'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상을 앞에 두고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새벽의 어둠이 서서히 환한 빛으로 밝아오기까지 묵묵히 기다린다"라는 말이 이러한 뉴턴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에피소드는 그 이야기의 진위여부를 떠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뉴턴 이전에도 사과나무에서 사과는 계속 떨어져 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원리에 대

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연 현상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뉴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과는 인력의 법칙에 의해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거기서 새로운 생각을 유추해내는 사람, 같은 대상을 관찰해도 거기서 새로운 통찰을 발견해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뉴턴적 패러다임'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시내의 한 대형서점 안에 있는 문구코너를 간접이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왼쪽에 나와 있는 박카스 병을 패러디한 제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일명 'PLUS POWER'입니다.

완구용 비닐에 갈색 잉크를 넣고 박카스병 모양으로 납작하게 압착했습니다. 거기에 붙은 레이블이 참 재미있습니다. 뒷면에 성분표시를 보니까 용기 300mg, 행운 100mg, 행복 100mg 이라고 함량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500mg의 파워가 플러스 된다는 얘기입니다.

효과 및 효능은 스트레스가 다운되고, 행복이 용솟음치며, 용기와 힘이 업(Up)

된다고 인쇄되어 있군요. 이 정도 되면 이 제품을 사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재미도 재미지만, 발상이 참 기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박카스를 한 번이라도 안 마셔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같이 박카스를 마시고, 같은 박카스 병을 본다 해도, 거기서 새로운 제품의 가능성을 '발견'

해 내고 그것을 제품 개발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바로 위에서 얘기한 '뉴턴적 패러다임'을 실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제품은 실제 박카스의 몇 배나 되는 가격으로 팔립니다. 바야흐로 '재미'와 '체험'도 디자인의 대상인 것입니다. 능력이 다가올수록, 지쳐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PLUS POWER'가 주는 '행운'과 '재미'로 서로를 격려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은 언제나 용기와 행운, 힘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품은 실제 박카스와 달리 유통기한이 없는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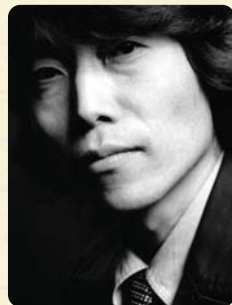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화입니다. 아오모리현은 일본에서 사과 산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어느 해 태풍이 심하게 불어 대다수의 사과가 수확도 못한 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사과가 수가 현저하게 줄었겠지요. 과수원 주인은 여기서 재미있는 발상을 했습니다.

사과를 멋지게 포장한 다음 무려 10만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백화점에서 판매했습니다. 바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타깃으로 한 것입니다. 태풍을 끄떡없이 견딘 사과이니, 대학 시험에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이용한 것이지요. 이 사과를 파는 것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사과를 판매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판매한 것입니다. 결국 이 과수원 주인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면 이 과수원 주인은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보고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뉴턴적 패러다임이 대상에서 '발견'이 핵심 가치라면, 에디슨적 패러다임은 '필요에 의한 발명'으로 요약됩니다. 에디슨은 다 아시다시피 축음기와 백열전구, 타이프라이터, 영사기 등 이루 헤아리기도 힘든 많은 것을 발명했습니다. 그가 받은 특허만도 무려 1,300건이 넘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두뇌를 하나의 틀에 끼워 넣는다. 독창적인 사고가 길러질 수 없다"라는 말로 그는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소리'가 기록됐습니다. 그의 전구로 인해 세상이 좀 더 밝아졌습니다. 뉴턴이 자연 속에서 '진실'을 밝혀냈다면, 에디슨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아바타로 감정을 표현하고, 돈이 아닌 도토리코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기업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더 이상 영속할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뉴턴적 패러다임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현상을 발견해야하고, 에디슨적 패러다임으로 소비자의 새로운 니즈(Needs)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기회는 그냥 찾아와주지 않습니다. 



임현우

미디어아트대학 시각디자인과
초빙전임강사

「상상력에 엔진을 달아라」 저자



영어실력 좋아졌다는 말에 힘이 붙곤 솟아요~

ISEP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한 지도 벌써 2개월째다.

내가 있는 학교는 North Carolina주에 있는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Asheville.

어디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캠퍼스는 우리학교와 많이도 닮았다.

하지만 학생들이 도란도란 모여 잔디에서 책을 읽고 악기를 연주하며,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는 모습을 볼 때 '미국 대학교구나' 실감하곤 한다.

이제는 완전히 극복했지만, 도착해서 3주 동안은 '시차적응' 하느라 꽤나 힘들었다.

수업이 한창인 오후 3시(한국시간 새벽 2시)에는 하염없이 졸리더니,

정작 모두가 잠든 시간에는 또렷해지는 것이었다. 한동안은 수업시간에 졸기도 하며...

그렇게 미국생활에 내 몸도 마음도 적응해가고 있다.

학교의 교환학생은 30명 정도.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다.

프랑스, 이태리, 독일, 영국, 홍콩, 일본, 멕시코 그리고 브라질...

각 개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문화의 차이는 확연히 느껴진다.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과 어울리면 더 즐겁고 재미있는지도 모른다.

한류열풍 때문에 난 홍콩과 일본 친구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지나다가 나를 볼 때면 "안녕~"하면서 서툰 한국인사말을 건네고 대장금 노래를 불러주기도 한다.

이 곳 생활 중 가장 힘든 것은 단연 수업시간이다.

다음 날 배울 chapter를 그 전날 미리 읽어야 하는데, 처음엔 10페이지가 넘는 원서를 읽으려니 숨이 턱턱 막혀왔다.

처음에는 읽기만 하는데도 4시간 이상이 걸렸다. 이제는 요령이 생겼지만 지금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

읽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수업시간 강의를 따라가는 것이다.

생활영어와는 달리 이론을 설명하는 수업들이기 때문에 100% 이해를 못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 주듯,

학기 초 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녹음기를 이용해 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좋은 방법은 수업마다 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다.

친구뿐만이 아니다. 소비자 마케팅 교수님은 수업 중간 중간에 미국 소비문화를 설명해 주시면서 쉽게 이해시켜 주기도 하시고, 경영과학 교수님은 수업 후나 메일로 질문을 끊임없이 해도 친절히 답변해주신다.

많이 너무 빨라 잘 못 알아듣는 수업도 있었는데 한 번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는 천천히 강의 해 주신다.

가끔씩은 기대했던 학점을 못 받아 갈까봐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기도 하지만,

요즘 들어 영어실력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을 때 마다 힘이 붙곤 솟곤 솟는다.

학기를 마칠 때쯤 변화된 영어실력에 만족해하는 내 모습을 그려가며

하루하루 이곳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후배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대학생만이 해 볼 수 있는 '교환학생'에 꼭 도전해 보라고.



ISEP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Program이란?

국제학생교환 프로그램(ISEP)은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 ISEI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Program이라는 기업을 통해 학생을 상호 교류하며, 현재 미국 110개 대학을 포함한 전 세계 35개국 240여개 대학이 회원교로 등록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5개 대학(연세, 연세, 고려대, 이화여대, 아주대)만이 회원교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대학은 지난 1998년 회원교로 가입되어 매년 교환학생을 파견, 초청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지매대학 뿐만 아니라 전세계 유수 대학 중 선택하여 유학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저렴한 경비로 유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 한국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그렇게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계명대학교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그 느낌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계명대 캠퍼스는 어느 곳을 봐도 꼭 한 편의 풍경화 같이 정말 예쁩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많은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고, 한국 학생들도 참 친절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학과 행사가 없는 대신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 보낸 MT와 체육대회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출석카드를 사용하는 일본과 달리 강의시간에 출석 체크를 하며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저에게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동양권이라 비슷한 문화일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놀랐던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정식시간 후에 도서관에서 양치질하는 학생들을 보고 정말 놀랐던 일이 생각납니다.

계명대학교 안에 있는 한학촌은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어주었습니다.

편안하고 정겨운 느낌이 좋아서 요즘도 수업이 없을 때면 자주 찾곤 합니다.

함께 다니는 한국 친구들은 제게 보다 더 많은 한국문화를 보여주고 몸소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경주여행. 불국사를 비롯한 한국의 많은 유적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먹었던 불고기요리는 참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친구들과 밤 먹었을 때가 떠오릅니다.

한국의 맛이라며 견네주던 김치 한 조각이 어찌나 맵던지 순식간에 얼굴이 붉어지고 입안이 열열했습니다.

지금은 적응되어 한국사람 못지않게 밥 먹을 때면 꼭 김치를 찾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친절하고 정이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유학 오기 전 일본과 한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친구들과 사귀며 학교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한국 학생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일본에 돌아가더라도 이 마음만은 마음속 깊이 남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저처럼 교환학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직접적인 문화 활동 참여도 하고,

부모님 곁을 떠나 홀로 자립심을 키우며 학업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젊은이들의 교류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후지이 유타 (Fujii Yuta)
영·어·영문학과

“저, 사람 있잖아. 해외 유학 갔다 왔대”
“근데 학력 위조했다잖아”
“사회 분위기가 문제야 문제.
능력, 인격으로 판단되는 시대여 오라!”

오은정 일어일문학과 05
류지연 자율전공부 07
김수진 자율전공부 07



학력위조 도대체 왜?

사회 유명인사에서부터 학계, 문화계, 연예인들에 이르기까지
학력 위조 의혹은 최고의 이슈였다.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학력위조!
선선한 바람이 간간히 불어오는 가을 캠퍼스에서
솔직하고 거침없는 답변의 지성인들을 만났다.
학력위조에 대한 계명인의 말.말.말! 어디 한 번 들어볼까? 🗣️



“엇! 희한하다, 희한해~ 보인다. 보여!
저 사람은 학벌이...
딴 사람을 만나야겠군~”
취미를 묻는 센스!
요런 것 좀 발휘하면 안되겠냐?

도현수 자율전공부 07
김지현 자율전공부 07

학력위조

“뚜뚜뚜두...
학력검증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요런 거 하나쯤 생긴다면 학력위조!
어림도 없죠~ 요고 괜찮은데~”

김재영 건축공학전공 04



시스템으로 자동입장!!



“쫄쫄... 이래서 안된다구~
이건 ‘도덕성’ 이 문제죠~ 문제!
학력도, 실력도 좋지만
도덕성이 제일이라는
말씀에 100% 공감~”

변태현 컴퓨터공학과 01

한승호 태권도학과 01

이희성 신문방송학과 01



“으음~ 안돼~ 안돼~!
무조건 말도 안 되죠,
학력위조란 있어선 안됩니다!”

이동규 경영정보학과 99

정기훈 경영정보학과 02

학력위조

한·당시대 보물 325점이 쏟아진다 - 『中國국보대구전』

중국문명사에 있어 한(漢)말엽부터 당(唐)까지는 북방 아시아 민족이 대거 중원으로 유입 되고,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교역이 일어나면서 황금시대를 맞이한다. 세계 4대 문명의 하나를 있게 한 황허(黃河)가 있는 중국. 세계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힘은 기원전(B.C) 5천 4천 년경부터 시작된 장구한 문명의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데...



'07.9.21-'08.2.24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성서캠퍼스)

중국국보대구전

Treasure from a Golden age of China, BC206~AD960

찬란한 중국문화의 진수를 만나다 | 계명대학교 캠퍼스에 중국이 들어왔다. 한나라로부터 당나라에 이르는 1200년 동안 펼쳐진 중국 고대 문명의 광휘가 행소박물관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다. ‘한·중 교류 1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중국국보대구전’이 그 것. 중국 39개 박물관에서 엄선된 총 325점의 유물 가운데 150점 이상의 국보급 유물이 전시돼 국내 전시사상 가장 많은 국보를 선보이고 있다. 기원전 3세기부터 10세기까지 고대 중국의 역사와 신화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고대 중국의 문화가 어떻게 진화되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중국국보전’은 이미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전시에서 3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했을 정도로 그 명성이 높다. 중국 고대의 화려하고 섬세한 보물들. 계명대에서 시대를 초월한, 찬란한 중국문화의 빛을 보고느낄 수 있다.

다섯 가지, 빛나는 역사 속으로 | 1관은 한의 문화유적들이다. 세계 고고학계를 흥분시켰던 마왕퇴 유물들은 물론 서한, 동한 및 삼국, 양진, 남조 시대의 유물 100여점을 전시하여 중국 전통 문화의 영광을 재현하고 있다. 소박한 듯 하면서도 기품이 있고 화려하다.

위진남북조와 5호 16국 시대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2관은 화려한 금동제 말안장 장식, 무사인물상의 투구와 갑옷에서 유목 문화의 분위기가 한껏 배어난다. 이 시기는 처음으로 중국이 이민족에 의해 지배된 시대다. 서양과 중앙아시아의 모티프가 담긴 공예품이 빼곡한 3관은 실크로드를 통한 동사 문화의 상호 교류과정이 한 눈에 보인다. 페르시아 은잔과 술병 등이 낙타의 등을 타고 건너왔을 것이고... 중국의 비단이 사막과 오아시스를 건너 서역에 이르렀을 것임이 머릿속으로 그려진다.

당의 유물을 중심으로 꾸며진 곳은 4관과 5관이다. 생동감이 가득한 4관에는 당나라 여인상이 있다. 알록달록한 채색을 사용했기에 ‘당삼채(唐三彩)’로만 알고 있는데 지금 보아도 나폴거리는 비단옷에 망사(網紗)다. 1400년 세월을 견딘 비단옷과 망사는 절정의 패션 감각을 자랑한다. 5관은 당 현종 이용기의 큰형인 이헌(李憲)의 무덤에서 발굴된 ‘앞드린 신하 모습의 인물상’이 있다. 처음 유물을 발견했을 당시의 형언할 수 없는 그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올 것이다.

문화 FTA의 시작은 2000년 전의 동아시아 | ‘중국국보대구전’은 중국이 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이며, 왜 한(漢)과 당(唐)의 문화가 중국 고대 문화를 대표하는지 여지없이 보여준다. 실크로드를 개척한 한이나 중국 고대사에서 가장 국제성을 자랑하는 당은 실로 ‘문명의 교차로’가 아니었을까. 이미 2000년 전에 동아시아 세계는 ‘문화 FTA’를 열었던 것이다. 고대 중국 문화의 흐름과 아울러 우리 미술문화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옥, 청동, 금, 은, 직물 등 다양한 재료들로 만든 놀라운 작품과 벽화들... 고대 중국사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회는 9월 21일부터 시작해 내년 2월 24일까지 계속된다. ☎

[중국국보전 홈페이지 www.ochina.co.kr]

제1관
한대문 화적계승



황소 모양의 등

제2관
초원문 화적융입



소

제3관
사조지 로적변영



은제 봉수 병

제4관
당, 점제문화적집자로구



채색을 한 문관

제5관
대당제 국적풍운



무덤을 지키는 천왕상

책 한 권과 차 한 잔이 어우러진 젊음의 놀·이·터 - 북카페

여유로운 주말이라 해도 독서는 쉽지 않다. 텔레비전, 인터넷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고 이것저것 잡다한 일들에 신경쓰다보면 책상에 손 한 번 뻗기가 힘든 것이 사실. 이럴 땐 편한 복장, 가벼운 발걸음으로 북카페를 찾자. 혼자서든 친구와 함께든 상관이 없다. 그저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골라 창가 햇볕 잘 드는 자리로 가면 된다. 따뜻한 차 한 잔에 잔잔한 배경음악까지 더해지면 세상 고민 다 잊고 조용히 책 속에 빠져 들 수 있다. 출출하면 샌드위치나 케이크 한 조각도 좋고... 최신 베스트셀러부터 고전문학, 전문서적까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다.

이방인의 '알베르 카뮈', 델러웨이 부인의 '버지니아 울프'가 금방이라도 튀어 나올 듯한... 책, 음악, 와인, 차(茶)가 어우러진 전천후 문화공간 <소설(小說)>은 대학생은 물론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기가 있다. 오래된 피아노에 앉아 연주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 안에 숲이 들어온 것처럼 청아한 향이 일품인 자스민차, 타자기, 다이얼식전화기, 라디오, 흑백TV, 낡은 LP판이 세월의 흔적을 공유한다.

베스트셀러를 원하는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Angel-in Us>의 3층에는 많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새로운 책을 교체하기 때문에 최신 서적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 근처 복합문화공간 <Club THAT>, 노천에서도 여유롭게 거품 뽕실 녹차라떼 한 잔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좋다. 1층은 북카페, 와인바, 2층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재즈공연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3층은 락카페와 파티공간, 4층은 전시와 이벤트 홀로 이루어져 있다. 10월 어느 주말, 북카페는 젊은이들로 북적이고 계단으로 올라가니 대구지역 미술가와 외부지역 작가들이 함께 참여해 대구의 지역문제와 예술을 논하는 '아트인대구 2007'의 일환인 '분지의 바람' 전시가 한창이다.

이렇듯 공연, 전시, 이벤트까지 한 곳에서 누릴 수 있고 젊음과 지성, 문화가 공존하는 북카페. 다중복합적인 것을 좋아하는 요즘 세대들의 코드와 맞아 떨어지면서 새로운 아지트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주말, 분위기 있는 놀이터에서 플레이톡(PlayTalk)을 해 보는 건 어떨까?



박용진대의 협력처장이 추천하는
교양서적 10선

1. 한국인의 정체성(탁석산, 책세상 문고)
2. 뜻으로 본 한국 역사(한석헌 전집 1, 한길사)
3.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선비(정옥자, 현암사)
4.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김태권, 갈채)
5. 십자군 이야기(김태권, 갈채)
6. 볼루 아메리카를 찾아서(홍은택, 창비)
7. 문화의 숲을 거닐다(정영희, 샘터)
8. 문화의 수수께끼(대빈 해리스, 한길사)
9. 21세기에는 바뀌어야 할 거짓말(정해신 외, 한겨레 출판)
10. 부의 미래(앨빈 토플러, 창림출판)

교양과 사람의 관계를
가장 중점적으로 연결하는
추천도서



‘교양’이라는 말은 그 말을 사용하는 목적과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지만, 대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양교육’이라는 말의 의미는 고도로 세분화 되어 가는 전문적 지식을 학문적, 인격적 통합을 향한 교육활동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교양교육은 현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판단 오류의 가능성을 좁혀가는 정신적 활동으로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나’와 ‘너’가 편안히 소통하는 이순(耳順)의 단계에 도달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화이트 헤드(A. Whitehead)는 ‘교육의 목적’에서 “교양이란 사고력의 활동이며, 아름다움과 인도적 감성(자비심)에 민감한 감수성이다”라고 했다. 활용되지 않고, 검증되지도 않으며, 참신한 연관성으로 결합되지 않은 채 머릿속에 주입되기만 한 관념을 ‘생기 없는 관념(inert ideas)’이라 하며 “모든 지적(知的) 혁명은 언제나 생기 없는 관념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었다”라고 표현했다. 마틴(G. Martin)은 교육받은 사람은 기계적인 존재에서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며,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경험에 비추어 볼 수 있고 하나의 가치체계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라 했다.

교양과 사람의 관계를 가장 중점적으로 연결 하면서 교양서적 10권을 선정하는 일은 매우 즐거운 일이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개인적인 가치관의 개입이 우선적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적잖이 있지만 나를 간략한 선정 기준을 정하여 선정해 본다. 첫째, 생각을 끌어내는 내용, 둘째, 보다 넓은 세상(문화)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 셋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내용, 넷째, 눈과 마음에 익숙한 말로 쓰인 내용이다. 주제들의 범위는 ‘나’를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기제(mechanism)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했다. 아래 의 목록은 한두 권을 제외하면(읽기가 어렵다면 책읽기 모임을 만들어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비교적 흡족하게 충족하는 책이라 생각하며 이 가을 계명인들에게 권해 본다. 📖



* Club THAT_4F



* Club THAT_1F

Remove of the traffic
 Always go slowly
 Vehicle: Walkers
 Children are all better
 Attention & in circulation
 Attention: One side
 zone pedestrian
 Let up hot weather
 Be up of Traffic
 車に気をつけて歩むべく注意
 注意車道人

fringe

The Edinburgh Fringe Festival

에딘버러,

그곳에서

계명인의 열정 휘날리며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The Edinburgh Fringe Festival)은 세계 4대 축제 중 하나인 지상최대의 문화예술 축제이다. 올해에는 2,050개의 공연이 250개의 공연장에서 31,000회 공연됐고 모두 12개의 한국 공연이 펼쳐졌다. 이는 '99년 '난타'가 최초로 진출한 이래 10년 만에 이루어낸 결과이다. 그 곳에 계명인이 있었다.



2% 부족한 열정체, 98%의 세상에 도전하다 | 지난해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돌아보고 온 고순철(광고홍보학전공 3년) 학생. 내년엔 꼭 이곳에서 공연을 하리라 결심하고 돌아왔지만 그에겐 ‘공연기획’만 있을 뿐 스펙도, 재정도, 팀원도 없었다. 팀원을 구하면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나가버렸고 에딘버러로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동분서주 뛰어다니며 끼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다. 지혜람(무용학과 4년), 최동우(한국문화정보학과 4년), 손상혁(문헌정보학과 2년), 정성희(문헌정보학과 2년), 김효선(행정학과 2년), 신미파(무용학과 4년), 이기석(계명문화대 광고디자인과 2년), 김상현(안무가), 이원희(프로비모이댄서)가 바로 그들이다.

별다른 지원도, 든든한 스폰서도, 연습실도, 돈도 없었다. 10명의 팀원은 출연진이자스텝이자 제작진이었고 의상제작부터 음악, 안무 등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고 기획하고 맞춰나갔다. 연습시간도 충분치 않아 저녁 10시에 모여 새벽까지 구슬땀을 쏟았고, 캠퍼스 노천강당이나 길거리 등 공간만 있다면 연습실이 됐다. 그렇게 그들이 만든 공연은 ‘거지와 여자의 사랑’이란 각설이 퍼포먼스, 사물놀이와 춤이 어우러진 남녀의 사랑으로 B-boy가 거지 역할을, 발레 전공자가 어우동 역할을 맡아 전통과 비보이를 표현했다.

모두의 열정이 하나의 꿈으로 모였기에 | 왜 힘들지 않았을까. 총연출은 맡은 고순철 학생은 팀원들에게 줄 수 있는 돈도, 공연의 성공도 보장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각자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며 잊지 못할 젊음의 분출이 될 것임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웃을 수 있었다. 선실에서 갑판 위로 솟아오른 자의 영혼처럼 모두의 열정이 하나의 꿈으로 모였기에 그 자체로 그들은 성공이라고.

그들의 열정을 안 것일까. 밤 시간 스튜디오 촬영장 등 연습실을 빌릴 수 있었고 인터넷과 지인들을 통해 모집한 소액 투자자들도 조금씩 투자를 해왔다. 하지만 출국 날짜에 맞춰 비용이 다 마련되지 않아 결국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하고, 팀원들에게서 얼마간의 금액을 각출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떠난 에딘버러.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기만 하다.

쏟아지는 햇살에 몸을 던져라! | 길거리 공연 첫 날, 각설이 분장을 한 그들이 공연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쳐다봤다. 분장과 동작이 재밌었을까.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였고 공연이 끝난 후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설 새 없이 쏟아지는 흥겨운 풍물가락, B-boy의 역동적인 몸짓, 각설이의 우스꽝스런 분장, 어우동의 한국적인 움직임에 외국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들의 열정이 언어와 문화의 벽을 극복하고, 세계인들의 심장을 두드린 것이다.

“한국을 알리는 데 각설이라는 캐릭터는 성공적이었어요. 각설이는 음악과 내용, 무용과 가락, 코믹이 있는 우리나라 종합예술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알아본 것일까. 공연 후 스페인의 공연 기획자가 내년 5월에 있을 극장 페스티벌 오프닝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각설이를 우리의 대표 문화로 표현하겠다는 그들의 생각이 적중한 것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있는 나라에서 왜 막힌 생각을 할까요?” | 고순철 학생은 말한다. “지역대학이라고 기죽을 것 없어요. 사람들은 저희더러 대단하다고 하지만 사실 대단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만 노력했느냐, 노력하지 않았느냐만 다를 뿐이지요”

계명인이여, 두려움을 갖지 말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면 시도 한 번 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 수 있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있어도 시도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 실패가 쌓일수록 인생이 풍부해진다. 그 경험은 삶의 플러스임이 분명하다. 🌟

천 년 고도

타임머신을 타고 옛 신라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민속촌의 교육성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레마파크의 즐거움을 모아놓은 곳.
지난 3월에 문을 연 신라밀레니엄파크는
천년 왕국 신라의 꿈과 향수, 라는 주제로
18년 만에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신라로의 여행 가는 길 ~

자가용 「경주I.C-」서라벌대로-」보문로-」

호텔 경주교육문화회관-」신라밀레니엄파크」

버스 「경주버스터미널에서 좌석10번 또는 일반10번」

* 소요시간 : 3~4시간(공연 1회당 30분을 포함)

* 개장시간 : 오전 10시~오후 10시

* 입장료: 2만원(주간 성인기준)

홈페이지 www.shliamillenniumpark

신라밀레니엄파크

‘천년 왕국 신라’가 경주에 부활했다



에밀레타워는 신라의 상징이자 파크의 심장

입구에 들어서서는 순간 석굴암 전실을 모티브로 만든 밀레니엄게이트의 웅장함과 신비로움에 감동의 탄성이 절로 나온다. 파크 안은 밀레니엄게이트를 포함해 역사와 영광, 도전과 모험, 문예체험마을, 천년고도, 화랑도량, 라궁의 7개 테마로 나뉘어져 있다.

600여 평의 호수 주변에는 이국적인 건물이 눈길을 끈다. 8세기 신라와 함께 당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경주를 포함한 전 세계 4대 도시다. 콘스탄티노플, 바그다드, 중국 장안의 화청지... 그리고 신라성곽과 에밀레종의 4배 크기로 지은 17m높이의 ‘에밀레타워’. 에밀레타워는 세계 4대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도 뛰어났던 신라의 상징이자 파크의 심장이다. 야간에는 화려하면서 은은한 조명을 머금고 그 찬란함을 한껏 뽐낸다.

스펙터클한 역사드라마 한 편이 눈앞에 펼쳐지고

수상무대 600평, 지상무대 약 300여 평의 방대한 스케일로 이뤄진 메인공연장. 전자는 이들 4대 도시들이 교류했던 바다의 상징이며, 후자는 육상교육의 대명사인 실크로드다. 혹시 다른 곳은 지나치게 되더라도 이곳에서 펼쳐지는 공연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고 보고 봐야 한다. 수상무대에 올라지는 주간 공연은 ‘천궤의 비밀’. 불의 검, 무엇도 뚫을 수 없는 갑옷과 투구... 실제 배를 동원해 신라 진지왕 때의 화랑 미시랑이 천궤의 보물을 통해 당나라를 무찌른다. 당나라 군사의 배가 기울어지고... 진지왕이 등장하여 미시랑을 격려한다. 이 장쾌한 한 편의 역사드라마가 눈앞에서 펼쳐지니 무엇이 이보다 환상적이라. 야간의 화려한 조명 뒤로 잔잔한 감동이 전해지는 ‘여왕의 눈물’도 빼 놓지 말자.

신라가옥도 보고 직접 체험도 하고

‘도전과 모험’ 지구다. 장보고 공연장에는 관객과 하나가 되어 호흡할 수 있는 퍼포먼스 ‘청해진’이 매일 공연된다. 호수에서 벌어지는 해상 전투신, 레이저와 특수음향 효과는 보는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든다. 징검다리위로 물방울이 날린다. 이곳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동굴 터널 ‘비탈지’ (생태연못). 족욕탕도 마련되어 있다. 자연 속 온천물에 발도 담귀 보자. 송림길에는 20m단위로 200년 기간의 문화유적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어 꼭 과거 속의 신라를 만나러 가는 느낌이다. 신라시대 마을인 신라방을 계급별로 정리한 ‘천년고도’도 볼 만하다. 당시 골품제도에 따라 성골과 진골, 4·5·6등급 등의 가옥이 실제 크기로 세워져 있다. 파크에서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문화체험마을’에는 인형(한지)공방, 칠기 및 칠보공방, 유리공방 등이 있어 어느 정도의 재료비만 부담하면 마음껏 만들어볼 수도 있다. ‘찰각, 찰각’ 아무 곳이나 카메라 셔터를 눌러도 이곳은 온통 신라다. 왕과 왕비 의상도 빌려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 하루 종일 신라 속에서 살다간다. 역사속으로의 시간여행이 이보다 재미있으랴.

신라천년의 초석이었던 화랑무예훈련. 화랑공연장에서는 ‘화랑의 도’라는 공연이 펼쳐진다. 둥둥~하는 북소리와 함께 말을 타고 달리며 칼싸움, 활싸움, 마상기예를 뽐낸다. 용감무쌍한 화랑의 기상이 온 몸으로 느껴지는 듯하다. 신라궁궐을 의미하는 국내 최초의 전통 한옥형 호텔 ‘라궁’도 있다.

신라밀레니엄파크에 전해지는 신라의 향기. 천년 고도(古都)경주에서 신라로의 시간여행을 떠나자. 📍

My Pride 계명대, 이래서 최고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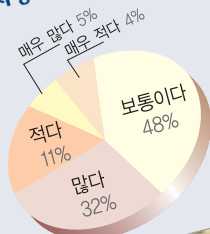
아름다운 캠퍼스가 단연 1위 | 그리스 신전 같은 분위기의 정문을 들어서면, 마치 하버드대학 같은 건물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붉은 벽돌건물과 초록빛 담쟁이들이 이국적으로 어울린다. 드넓은 나무들이 줄이어 서있는 길은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 부럽지 않다. 중세의 건축물이 연상되는 저 건물은 아담스 채플이다. 조선시대를 옮겨놓은 듯한 계명한학촌도 있고, 음악·문화·역사가 함께하는 박물관도 보인다... 계명인이 선택한 단연 최고의 자랑거리는 바로 캠퍼스. 대학생들에게는 젊음과 멋진 열정을, 청소년에게는 높은 학구열의 꿈과 열정을, 중년층들에게는 젊은 날의 멋진 추억들을 회상할 수 있는 미래의 공간이자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추억의 장소. 캠퍼스엔 가을 느낌이 물씬 난다.

더 많은 장학혜택 원해요 | 한편 '더욱 육성시켜야 할 분야는?'이라는 질문에는 폭넓은 장학제도의 활성화를 적은 학생들이 32%로 가장 많았다. 진로에 대한 기회와 관심을 확대하고 취업지원을 원한다는 학생도 25%나 되어 심각한 취업난을 걱정하는 학생들의 불안이 엿보이기도 했다.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계명대 지성인들의 답변이랄까. 보다 진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원한다는 학생도 3%나 됐다. '어떤 과를 더욱 육성시켰으면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대부분이 자신의 학과라고 적어 자신의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과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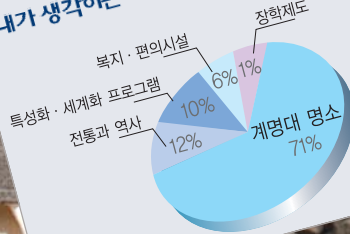
'학교발전을 위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이라고 묻자 37%의 학생들이 장학제도의 개선과 확대에 응답했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제도는 육성시켜야 할 분야임과 동시에 학교 발전을 위해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또 11%의 학생들은 인터넷 존, 스쿨버스 노선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 등의 복지·편의시설 부분의 개선을 원했다. 또한 "도서관과 열람실을 늘려주세요" "국제 학생교류를 확대하고 교환학생도 늘려주세요"고 응답해 높은 학구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대학교의 최고 자랑거리는 무엇일까? 계명대학교 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학생 과반수이상인 71%가 '아름다운 캠퍼스'라고 답해 드라마·영화 촬영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명소임이 또 한 번 입증됐다. 오랜 역사의 깊이와 학생들에게 전해졌을까 2위는 '전통과 역사'가 12%로 뒤를 이었다. KIC, EMU·SNU·SPbSU·DigiPen 복수학위제, FISEP, 계명소평음악원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의 특성화·세계화 프로그램도 10%로 3위로 선택됐으며, 인터넷서넌라운지, 명교생활관 등 복지·편의시설은 6%, 장학제도는 1%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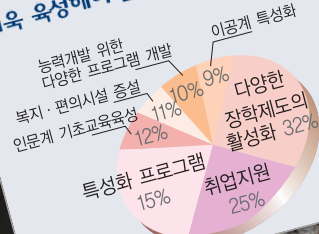
계명대의 자랑거리는?



내가 생각하는 계명대 최고 자랑은?



더욱 육성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백설공주 아니죠~ 신데렐라 맞습니다!】

건강한 수면법, 신데렐라에게 배우세요~



‘수면은 피로의 최상의 약이다’ 불면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밤 12시면 반드시 잠드는 ‘신데렐라형 수면습관’은 피부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 더불어 노화에도 관련 있다는 ‘올바른 베개법’도 알아보자.

잠, 인체의 회복작용

밤 12시 이전에 잠들면 생리 리듬상 바로 ‘넌렘(Non Rem)’ 수면에 들어가 뇌가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잠을 자는 동안은 ‘넌렘(Non Rem)과 렘(Rem)수면이 반복되며 처음 잠들면 넌렘 수면에 들어간다. 처음 1, 2회의 넌렘 수면이 숙면의 기초가 된다. 이때의 숙면은 교감신경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호르몬의 분비를 좋게 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잠은 한마디로 인체의 회복 작용인 것이다.

숙면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새벽 2~4시. 사람은 체온이 낮을 때 숙면을 취할 수 있는데, 체온은 오후 2시경에 최고점에 달하고, 새벽 2~4시경에 최저가 된다. 따라서 12시 이전에 잠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수면법이다. 또한 꼭 필요한 멜라토닌의 분비는 오전 2~3시 이후에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면 숙면의 효과는 오히려 반감된다.

수면은 양보다 질이 문제! 오히려 잠을 지나치게 자면 수면의 효율성(자는 시간/누워 있는 시간)이 떨어져 몸은 언제나 나른하고, 멍한 상태가 지속된다. 나쁜 수면 습관은 가라! 탕탕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위해, 건강한 내 삶을 위해, 신데렐라 수면습관을 갖자!

베개, 이젠 맞춤형!

‘베개가 높으면 일찍 죽는다’는 ‘고침단명(高枕短命)’이 간접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베개의 적당한 높이는 베고 누웠을 때, 머리가 들리지 않고 바닥 선과 수평이 유지되는 6~8cm 정도! 잘 때 베개를 목에만 받쳐서 뒷머리가 등과 함께 바닥에 닿게 할 때 목뼈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하며, 목과 어깨근육이 가장 편안하게 쉬게 된다. 그래서 베개는 목을 받치고 뒷머리가 바닥에 닿게 할수록 좋은 것이다. 그렇다고 베개를 베지 않으면 목뼈에 무리가 가서 목 디스크 질환을 초래할 수 있고 목 뒤의 근육과 어깨의 근육은 더 긴장되어 뻣뻣하게 된다. ❄

〈잠이 솔솔 ~ ★★ 알아두면 좋은 건강수면 클리닉 ★★〉

1. 주말에 자지 말고, 아외로 나가면...
몸이 충분히 햇빛을 받아 멜라토닌이 분비돼 밤에 잠이 잘 온다.
2. 은은한 라벤더향이 내 방 가득 퍼지면...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다음 날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을 수 있다.
3. 수면에 바나나가 도움이 된다는데...
숙면을 위해서 대추차, 솔잎차, 둥굴레차 등과 따뜻한 우유,
그리고 잠들기 한 시간 전쯤 바나나를 먹는 것도 좋다.
바나나엔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



계명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계명장학재단 주최로 지난 9월 11일 행사박물관에서 '2007년도 계명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계명장학재단 신일희 이사장, 계명대 이진우 총장 및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20개 고교 재학생 20명과 대학(원)생 30명에게 모두 8천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글로벌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는 6개국 140여명의 학생들에게 6천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올해에도 7천 3백여 만원의 글로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성공 CEO 초청 강의 열려

계명대는 지난 9월 13일 디보스(주) 심봉천 사장의 강의를 선두로 오는 12월 13일까지 한 학기 동안 모두 13명의 CEO를 초청해 강의하는 정규 교과목을 개설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공 CEO의 열정과 경험을 배우고 중소기업의 인식개선,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과대학이 대구 경북 중소기업청과 협력해 마련하였으며, 학기 중에는 강의 참여 중소기업을 방문하는 현장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사)계명 1%사랑나누기, '사랑의 쌀·연료 나누기' 행사

(사)계명 1%사랑나누기는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14일 성서캠퍼스 분관 앞 광장에서 교수 및 학생 등 1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인 가운데 '사랑의 쌀·연료나누기' 발대식을 가졌다. 이 날 봉사자들은 8천만원 상당의 쌀과 연료를 저소득·장애우 가정 등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또한 제주 출신 재학생들과 함께 지난 8월 태풍 나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제주도 지역을 긴급 방문, 수해복구 긴급 구호물품을 제주시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주한 베트남·카자흐스탄 대사 특별 강연 펼쳐

두랏 바키시브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는 지난 9월 13일 계명대를 방문, 이만섭 前 국회의장, 신일희 계명대 이사장, 이진우 총장을 비롯 학생 및 교수, 한·협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세계 속의 새로운 카자흐스탄'이라는 주제로 한국·카자흐스탄 협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한편 지난 9월 6일에는 팜 띠엔 반 주한 베트남 대사가 '수교 15주년을 맞는 한국과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라는 주제로 행사박물관에서 특별 강연을 했다.



'계명일상전환 프로젝트 일곱빛깔 엔돌핀' 가을 축제

계명대는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각 단과대학별로 재미있는 주제와 다채로운 이벤트로 '계명일상전환 프로젝트 일곱빛깔 엔돌핀'이라는 주제의 가을축제를 열었다. 이번 축제는 KIC 등 일곱 개의 단과대학이 색시, 발랄, 인터네셔널, 순수, 자유 등의 컨셉을 정해서 성격에 어울리는 행사와 이벤트로 진행됐다. 또한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취업한미당', '프레젠테이션 경연대회'도 열렸다.



국제 인턴십 관련, 외국인사를 내방 이어져

일본 Nissay Dowa General Insurance의 마사오 오자카키(Mr. Masao Okazaki) 명예회장 내외가 10월 9일 계명대를 방문, 이진우 총장을 접견하고 국제산학협력 인턴십 논의 및 캠퍼스 투어를 했다. 또한 학술 교류 및 국제 인턴십 관련 업무 논의차 야마신후지야그를(Mr. Kim Hotae)과 한국연구회(Mr. Takashima Katsufumi) 대표단도 10월 12일 계명대를 방문했다.



독일 Chemnitz 대학, 일본 오비린 대학교와 교류 협약 체결

계명대는 지난 9월 16일 독일 Technical University of Chemnitz와 학생 교류 및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체결로 향후 양 대학은 학학 및 기계자동차공학분야에서 DAAD-HOST Program의 지원을 받아 해마다 교수 및 학생의 교류를 통해 강의, 공동연구 수행, 학점 이수 및 방문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9월 6일에는 오비린대학교 총장 사토 도요시, 안우식 교문, 김세중 부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 오비린 대학교와의 학술교류 협정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2007 계명대 'Matching jobs-성공적인 취업전략, 취업한마당' 개최

계명대는 지난 9월 19일, 사회과학대학 앞 광장에서 '2007 계명대 Matching jobs-성공적인 취업전략, 취업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적성검사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이미지 메이킹 특강뿐만 아니라 하반기 취업시즌을 대비한 각종 취업전략과 채용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학생진로지원실에서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업전략클리닉 캠프'를 10월 25일~27일 경주콩코드호텔에서 3,4학년 재학생 70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유명인사들 초청특강 연이어 열려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가 지난 10월 10일 계명대를 방문, 이공계학부 재학생 4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의양관 운세실에서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기술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또한 지난 9월 19일에는 사회과학대학에서 정몽준 국회의원을 초청해 '탐험심과 모험심 그리고 정치'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패션디자인과, '테디베어의 세계여행-대구 특별전' 참가

패션대학 학장 이호정 교수) 패션디자인과 재학생들의 작품이 우방타워 특별전시관에서 열리는 '테디베어의 세계여행'에 전시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테디베어 전시회로 알려진 이번 대구 특별전에서 패션디자인과 학생들의 작품이 국내 최고 패션디자인 20명이 제작한 테디베어와 어깨를 겨룬 것이다. 이 전시회는 12월 9일까지 계속된다.



중국 정부 선정 중국 최고의 산수화가 정보진(鄭伯勤) 화백 초청 작품전시회 열려

계명대 중국학과는 중국 정부가 선정한 국가 최고급 화가인 정보진(鄭伯勤) 화백을 초청하여 지난 10월 11일~17일까지 대명캠퍼스 극재미술관에서 작품전시회를 열었다. 한중 문화교류의 장을 확대하는 취지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白頭山の四季"라는 주제의 작품 200여점이 전시됐다.



지역 기업 CEO 초청 '제2회 가을의 소리 계명의 소리 Gala Concert' 열려

계명대는 대구·경북 지역 기업 CEO 내외분을 초청하여 지난 10월 20일 계명한학촌에서 '제2회 가을의 소리 계명의 소리 Gala Concert'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K-up의 장기 목표인 2020 Top10을 위해 도약하고 있는 계명대를 적극 홍보함과 아울러 대학발전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기업체와 활발한 산학교류 및 취업활성화를 위해 매년 화합의 장을 마련해 오고 있다.

동산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동산도서관(관장 김종영 교수)에서는 지역주민과 유대관계를 통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형성을 위해 20세 이상의 일반인(주부 포함),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주1회 3시간 이상 도서관 이용자로 배가 및 서가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되며, 필요시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가 발급된다. 자원봉사신청은 사전 예약접수로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다. (문의 : 053-580-5693)

계명대학교 2008 입시설명회

계명대 2008 입시설명회가 대구·경북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성서캠퍼스 아담스채플에서 개최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바로 실시되는 이번 입시설명회는 대구·경북 지역 90여개 고교 수험생 30,000여명과 인솔교사 1,100여명이 참가할 계획이며, 정시 '나', '다' 군 분할 모집과 전형방법에 대한 입학 설명과 함께 계명대 홍보영화 상영, 파이프오르간 연주, 연극공연, 음악 공연, 태권도 시범, 응원 시범 등 재학생 공연으로 진행되고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마련된다.



« 이진우 총장



« 한문식 산학협력단장



« 패션디자인과 재학생



« 봉사 동아리 아름다리팀



« 임혜자 교수

이진우 총장은 국제 협력 교류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22일~10월 6일 동안 독일 뒤셀도르프대학 및 캄니츠공대, 아헨공대, 폴란드쇼팽음악원을 방문했으며, 폴란드쇼팽음악원에서는 <음악이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유—음악적 감각과 청취—사색>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했다. 또한 학술진흥재단에서 마련한 '석학과 함께 하는 인문 강좌'에 국내 학계를 대표하는 인문·사회과학자 10명의 석학으로 선정되어, 2008년 3월 8일~4월 5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사회의 도덕적 기초'라는 주제로 '사회는 개인과 사회적 영역을 통해 어떻게 도덕적으로 구성되나'라는 내용으로 총 5회에 걸쳐 강연할 계획이다.

한문식(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산학협력단장은 산업기술연구원(KOCI)의 기획평가위원(기계, 재료, 생산기술분야)으로 위촉되어 향후 2년간 KOCI의 기능조정과 평가, 장기발전방향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패션대학 패션디자인과 1·2·3학년 재학생들은 9월 29일~30일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1회 제일모직 FUBU 크리에이티브공모전'에 참가해 의상부문에서 서유진(3년) 학생이 은상, 박민규(3년), 김병주(2년), 김민선(3년), 이지선(3년) 학생이 장려상을, 그래픽 부문에서 오승현(1년)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했고, 각 부문에서 단채상도 수상했다.

봉사 동아리 '아름드리' 팀(최민호(컴퓨터공학과 4년), 김승철(사회복지학과 4년), 이승철(통상학과 4년), 변태현(컴퓨터공학과 3년), 강유진(영어영문학과 4년), 김보연(중국학과 4년), 이은주(간호학과 4년), 유예란(중어중문학과 3년))은 KEC과학교육재단 주최 '제2회 대학생동아리 경진대회'에서 대상(1위)을 차지했으며, 상금 중 일부를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임혜자(음악·공연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가 안무를 맡은 임혜자 현대무용단은 경기도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제16회 전국 무용제'에 <숨바꼭질(Hide and Seek)>이라는 작품으로 참가해 은상을 수상했다. 또한 현대무용전공 **김교열(무용학과 4년) 학생**은 연기상을 수상했다.

음악·공연예술대학 연극예술과 레몬팀은 '제2회 거창대학연극제'에 창작극인 <여름이 가기 전에>라는 작품으로 참가하여 작품부문 대상(1위)을 비롯해, 개인부문에서 임지혜(3년) 학생은 희곡상, 권초영(3년) 학생은 여자연기대상을 수상했으며, 부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김진범(4년) 학생은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와 지역취업포털 (주)코잡이 공동주최한 '2007 대구경북 취업서류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미디어영상학부 디지털영상전공 허선윤(4년), 최성(4년), 박혜숙(4년), 이은정(2년) 학생이 경기문화재단 창립 10주년기념 '어머니' 영상작품공모전에서 <무당의 딸>이라는 작품으로 단편영화 및 다큐멘터리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무당의 딸이 엄마를 이해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다큐멘터리로 같은 시기에 출품한 KBI와 KBS N이 함께하는 '제9회 2007 대학 영상 페스티벌' 비경쟁작 특별상도 수상했다.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영상학부 광고홍보학전공 성진혁(4년), 제갈현열(3년), 김주현(3년), 심승이(중국어과 3년) 학생으로 구성된 팀은 지난 9월 20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2007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은상(3위)을 수상했다.

'에스엠티 플러스팀'(미디어영상학부 디지털영상전공 김희중(2년), 박혜숙(4년), 신문방송학전공 김희연(3년))은 전국 규모의 영상공모전인 '제13회 경기도와 YTN이 함께하는 전국 대학생영상공모전'에서 <돈이 되는 UCC, 독이 되는 UCC>라는 작품으로 우수 작품을 수상했다. 또한 디지털영상전공 김희중 학생은 '2007 국정홍보처 대학생 정부광고 공모전 UCC 영상부분'에서 <Korea & Korean>이라는 작품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이이공이' 팀 (이준희(2년), 김장한(2년), 박선희(3년), 이혜영(2년), 김현지(2년))과 '에이엔유' 팀(백광현(4년), 류혜민(3년), 이혜미(2년), 채가영(2년))은 김해시가 주관한 '제5회 김해시 도시가로경관 디자인 공모전'에서 각각 <김해는 땅이 아닌 바다였다>와 <버스정류장 개선 방안>이라는 작품으로 은상(3위)과 동상(4위)을 수상했다. 또한 환경대학 에너지환경계획학과 김종석(4년), 류지욱(4년), 김병진(4년), 이은경(4년), 김성호(3년) 학생은 <Missing Link(잃어버린 자존심을 찾아서)>라는 작품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장옥관(인문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시집 <달과 뱀과 짧은 이야기>로 '제3회 일연문학상'을 수상했다.

하석배(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교수는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대구국제오페라페스티벌' 개막 오페라 <나비부인(이태리 일본 한국 3국 합작)>에 주인공 핑커턴 역으로 출연했다. 또한 이화영(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교수는 서울시립오페라단과 대구시립오페라단의 합작품인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서 여주인공 산투짜로 출연했다.

박병춘(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미국 MARQUIS에서 2007년 12월에 출판되는 '2008-2009 Who's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 10주년 기념호'에 등재될 예정이다.

벤처창업보육사업단(단장 김현수 교수)에서 지원하는 창업동아리 라이너스(대표 박재영, 경영학과 3년)가 지난 8월 16일~17일 동안 경일대학교에서 열린 창업경연대회 지역예선에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은상(2위)을 수상했고, 지역에서 2개의 출전권이 주어진 전국 창업경연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했다.

음악·공연예술대학 관현악과 Flute 남경민(4년), Clarinet 정수연(3년), Bassoon 문혜리(4년), Viola 정지나(2년), Cello 김선영(3년), D.bass 우현수(3년) 학생은 일본 나고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주최한 '나고야 필하모닉 21세기 오케스트라 프로젝트' 오디션에 합격했다.



《연극예술과 레몬팀》



《광고홍보학전공 재학생》



《에스엠티 플러스팀》



《건축공학전공 이이공이팀》



《관현악과 재학생》



'뉴비전(New Vision) 동산21 선포' 재도약 결의

동산의료원이 지난 10월 1일 개원 108주년을 맞아 21세기를 향한 새천년 동산의료원을 꿈꾸며, 도전적 미래의 가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결의했다. 교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개원 기념예배를 시작으로 '뉴비전 동산21 선포식'과 '제2회 자랑스런 동산인상' 시상식을 열었다. 또한 3Fa(Faith(신앙, 신념), Favor(친절, 은혜), Family(가족, 동료)운동을 펼쳐 나눔과 섬김과 믿음의 공동체를 지향하기로 했다. 손수상 의료원장은 "뉴비전 동산 21의 경영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전교직원이 적극 참여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산의료원은 앞으로 친절안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구축하고, 건강강좌 확대 실시 및 한우사랑 사진 전시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 자랑스런 동산인상 수상자

- 동산교수상 : 이창영 교수(신경외과), 이형 교수(신경과)
- 동산전공의상 : 정수원(정형외과3년차)
- 고재서비스상 : 강철형 교수(정형외과), 배수진 간호사(수술실)
- 환자유치상 : 이구호팀장(원무팀)
- 봉사상 : 권남숙 간호사(수술실)
- 우수부서상 : 심장내과, 원목실, 내과중환자실
- 우수협력병원 : 혜원성모병원(원장 김의원)
- 우수협력의원 : 권득기산부인과(원장 권득기)
- 협력상 : 에스텍
- 특별공로상 : 이승현 원장(삼성안과)



'화이자 사랑의 병원 그림축제' 성황리에 열려

'화이자 사랑의 병원 그림축제'가 지난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 한우, 보호자, 의료진 등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려히게 펼쳐졌다. 캔버스 그리기와 함께 소아과 5층 외래, 2층 검사실 복도 등에 벽화 그리기로 이어진 이번 축제는 미국 병원예술가들의 지도하에 환우들이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축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치료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열렸다. 특히 이날 축제엔 거동이 불편한 환우를 위한 미술사와 테디베어 캐릭터가 직접 병실을 방문하여 '행운'을 상징하는 포춘 쿠키와 선물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의료선교박물관 '잘 가꾼 문화유산'에 선정

동산의료원 의료선교박물관이 지난 9월 13일 시민단체의 '잘 가꾼 문화유산'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제5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보전 대상지 시민공모전을 통해 이뤄졌으며, 고품스런 박물관과 더불어 오랜 역사만큼 주변의 자연환경이 아름다워 드라마나 영화촬영 및 예비 신혼부부의 웨딩 촬영지로 각광받는 이색 문화공간이다. 의료선교박물관은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24호~26호로 지정된 스위츠주택(선교박물관), 챔니스주택(의료박물관), 블레이어주택(교육역사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대구시 시티투어 코스에도 포함되어 대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한 몫 하고 있다.

'네팔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 열려

한국-네팔 협회(회장 윤성도)가 지난 9월 4일 대구제일교회 교육문화관 4층 강당에서 '네팔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 행사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트럼펫과 피아노 등 기악곡과 한국가곡, 성가곡, 유명 오페라 아리아 등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고 잘 알려진 곡들로 꾸며졌으며, 출연진 음악가의 희생적인 사랑과 봉사정신에 의해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깊다. 자선음악회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네팔 현지 네팔인과 국내의 네팔근로자, 유학생들을 돕는데 쓰일 예정이다.



'주 임상경로 자동추출 시스템' 일본 수출

전자의무기록 내의 필요한 정보만 자동으로 추출하여 환자치료에 효율성을 높이는 의료정보학교실(주임교수 김윤년)의 '주 임상 경로(clinical pathway) 자동추출 시스템'이 일본에 수출된다. 산업자원부의 지역 R&D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의료정보학교실의 박학준 연구강사와 (주)엠피웨어의 전효찬 팀장 등이 주축이 되어 공동 개발한 이 시스템은 (주)엠피웨어에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지난 9월엔 일본 후지쯔(Fujitsu)와 일본 내 적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동산병원 국제진료센터 확장 개소 '외국인 환자' 서비스 강화

동산의료원은 늘어나는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진료센터(International Healthcare Center)를 확장 이전, 지난 9월 19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미168의무중대 사령부 에커먼(Lt.Col.Ackerman Bret) 사령관 등이 방문, 손수상 동산의료원장, 김권배 동산병원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과 국제진료센터, 의료선교박물관 등 의료원 곳곳을 둘러봤다. 국제진료센터 이동필 소장은 "국제진료센터가 선진 진료 시스템과 친절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외국인 진료를 위한 체계를 재정비하고 나아가 한국 의료의 위상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계명대 간호과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개최

계명대 간호과학연구소(소장 김정남)가 '건강불평등의 근거중심적 접근: 가정 폭력과 암'을 주제로 제14회 국제학술대회를 10월 11일, 12일 양일간 동산의료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건강불평등과 관련하여 미국 존스 홉킨스 간호대학에서 암간호 관리를 연구해 온 한해라 교수와 배우자 폭력에 관한 간호학계의 권위자인 낸시 글래스(Nancy Glass)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열 원장 등을 초청해 건강불평등의 개념을 규명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건강을 증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의 장이 열렸다.



의과대학 학부모회 김현철 의대학장, 사랑의 발전기금 전달

계명대 의과대학 학부모회(회장 배수진)는 지난 9월 19일 의과대학을 방문해 자녀사랑과 학교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43명의 학부모가 모은 4,260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김현철 의대학장도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학교를 위해 쾌척하였다.



손수상 의료원장, 한국·카자흐스탄 협회 회장에 선출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양국의 친선과 우호를 다지는 한국-카자흐스탄 협회가 지난 9월 13일 계명대 향소박물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손수상 의료원장이 회장에 추대됐다.



류승완 교수, 정맥경장영양학회 학술상 수상

위장관외과 류승완 교수가 지난 8월 31일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위암환자에서 영양결핍 판정' 제목의 논문으로 학술상을 수상했다.



임만빈 교수 수필집 문화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

신경외과 임만빈 교수의 수필집 <선생님, 안 나아서 미안해요>가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07년 3·4분기 우수도서로 선정됐다.



김대현 교수,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가정의학과 김대현 교수가 금연과 건강증진 분야의 국제학술지 논문발표와 관련 업적을 인정받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의 과학기술분야(Science and Engineering) 2008-2009년도판(제10판)에 등재된다.



허승호 교수,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심장내과 허승호 교수가 심장질환에 대한 탁월한 연구와 치료에 대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의 2008년도판(제25판)에 등재된다.

계명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안내

대학발전기금조성, 동참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소중히 받들겠습니다.

기금의 납부는 현금이나 현물, 유가증권 주식, 부동산 등 어떤 형태라도 가능하며, 개인·단체 구별없이 누구나 기금조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의 약정은 전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다음계좌로 입금하신 후, 연락주셔도 됩니다.

- 계좌번호 : 대구 086-04-000434-7 / 국민 644-01-0032-361
우체국 703454-01-000838 / 농협 150077-51-001831
- 발전기금조성위원회 : 전화 (053)580-6323 / FAX (053)580-6325
- 발전기금을 출연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연락처 : 계명대학교 발전기금조성위원회
- 전화 : (053)580-6323 팩스 : (053)580-6325
- 홈페이지 : <http://fund.kmu.ac.kr>



■ 대학발전기금을 내신 분들 (2007. 4. 24~2007. 10. 12 현재)

교원

강구식	500,000
강문식	50,000
강승규	400,000
강영욱	10,000,000
강인호	500,000
계정민	200,000
고문자	4,000,000
고봉경	200,000
고화선	200,000
공명재	50,000
공성훈	250,000
구교태	40,000
권상장	200,000
권수영	200,000
권연수	250,000
권업	250,000
권오규	150,000
권오식	300,000
김경	50,000
김광현	40,000
김군찬	400,000
김권구	400,000
김권배	2,000,000
김기혁	13,400,000
김난희	100,000
김남형	2,000,000
김대경	400,000
김방선	40,000
김복규	750,000
김선	500,000
김선희	50,000
김성미	100,000
김성은	2,750,000
김성훈	250,000
김세철	40,000
김승민	500,000
김신혜	300,000
김연욱	250,000
김영건	50,000
김영문	50,000
김영인	50,000
김영진	2,100,000
김영철	3,048,000
김영철	250,000
김용일	200,000
김윤조	2,250,000
김인수	200,000
김장환	250,000
김정자	200,000
김중영	1,250,000
김중환	200,000
김주일	500,000
김진상	500,000
김창재	250,000
김춘해	70,400,000

김태완	750,000
김판희	250,000
김한수	500,000
김혁일	150,000
김현수	300,000
김현정	30,000
김혜경	500,000
김해순	50,000
김혜정	200,000
김희중	150,000
나수련	200,000
노광수	50,000
박광성	400,000
박남환	50,000
박동완	600,000
박명호	150,000
박상원	100,000
박선미	200,000
박성수	100,000
박세정	500,000
박이창	250,000
박영태	100,000
박옥련	250,000
박용진	6,900,000
박일우	1,000,000
박재환	250,000
박정숙	2,000,000
박주홍	50,000
박철웅	100,000
박해선	200,000
박희권	500,000
배석천	250,000
배재현	250,000
배지연	200,000
백승욱	500,000
변홍식	1,500,000
서정남	40,000
설화아	500,000
성희구	200,000
손달호	50,000
손철수	250,000
송장욱	400,000
송형석	100,000
신규철	250,000
신동준	500,000
신득률	250,000
신인숙	1,000,000
신일희	28,680,000
신진교	50,000
신희원	400,000
심현지	200,000
심호택	2,000,000
안봉근	200,000
양선아	40,000
양정혜	40,000
엄우웅	250,000

여박동	50,000
오우성	2,500,000
오창우	40,000
유가호	400,000
유대식	1,600,000
유민	50,000
유상진	50,000
유호욱	850,000
윤경표	300,000
윤미정	200,000
윤병구	200,000
윤영진	500,000
윤원희	40,000
윤진숙	200,000
이경미	200,000
이대우	400,000
이동수	500,000
이병로	200,000
이병찬	50,000
이병환	500,000
이삼빈	250,000
이상식	40,000
이성원	400,000
이성환	250,000
이수진	200,000
이수희	200,000
이승선	250,000
이승업	50,000
이승환	150,000
이승희	50,000
이시경	500,000
이시훈	40,000
이영기	350,000
이인선	10,150,000
이재울	200,000
이종광	500,000
이종국	250,000
이종문	2,000,000
이종희	1,000,000
이지우	50,000
이진우	50,000
이진호	250,000
이준호	250,000
이태관	500,000
이필환	200,000
이한영	700,000
이현희	500,000
이호정	2,500,000
임경수	1,000,000
임대근	200,000
임문영	10,000,000
임진수	500,000
장병욱	1,000,000
장정원	200,000
장준호	150,000
진병철	40,000

정건영	50,000
정근조	100,000
정기웅	50,000
정막래	6,000,000
정문영	200,000
정병두	400,000
정승학	200,000
정연식	100,000
정연진	150,000
정용진	50,000
정용호	3,000,000
정인교	200,000
정재업	50,000
정정호	250,000
정중호	500,000
정지원	200,000
정진갑	500,000
정취정	200,000
정현희	250,000
정호진	150,000
정홍	600,000
조범래	500,000
조봉진	50,000
주성희	200,000
최기문	3,300,000
최만기	1,050,000
최명수	250,000
최무진	50,000
최미경	200,000
최미자	200,000
최봉기	500,000
최선경	200,000
최우정	500,000
최현식	250,000
최현주	40,000
탁진영	40,000
하영득	2,000,000
하영석	50,000
하정봉	500,000
한문식	400,000
한충희	650,000
허도화	1,100,000
홍관수	50,000
홍순성	50,000
황재광	200,000
황재범	1,000,000
소 계	248,568,000

직원

구차술	1,000,000
김경환	50,000
김시탁	200,000
김점웅	70,000
김태화	50,000
김판준	50,000
남택수	100,000

박강호	50,000
박성호	500,000
백기만	50,000
변양원	1,130,000
서해광	200,000
성이환	50,000
양재희	250,000
오성희	50,000
이상철	115,000
이성우	50,000
이은희	1,000,000
이정호	500,000
정경호	150,000
정만주	50,000
정인철	50,000
정지웅	50,000
하지원	50,000
홍창수	250,000
홍희숙	50,000

소 계 5,665,000

동문

강성민	50,000
강숙향	30,000
강신화	50,000
강원호	20,000
강해구	50,000
강현건	50,000
경영희	3,000,000
토목동문회	600,000
충동창회	5,000,000
골매회참가자	9,500,000
곽두영	50,000
곽수영	600,000
곽승호	400,000
구동국	250,000
구순옥	50,000
구정숙	1,000,000
권경래	300,000
권상민	1,600,000
권오성	50,000
권오식	500,000
권진혁	50,000
김광준	50,000
김교섭	1,000,000
김귀양	30,000
김기형	20,000
김남정	300,000
김명숙	400,000
김명호	50,000
김무상	50,000
김무진	40,000
김문기	200,000
김문희	40,000
김미숙	1,000,000
김미현	10,000



등문·교직원·학부모 모두 참여하세요!
「학과(전공) 100구좌 모금운동」

김민영 1,000,000
김민정 50,000
김상호 20,000
김선충 50,000
김성호 50,000
김성호 50,000
김성환 30,000
김세훈 10,000
김순규 30,000
김순연 90,000
김영경 600,000
김영현 1,000,000
김응구 100,000
김용복 50,000
김원수 100,000
김은성 400,000
김은정 100,000
김은정 600,000
김은주 300,000
김익술 60,000
김재철 120,000
김정옥 300,000
김제호 30,000
김종렬 10,000
김종복 60,000
김종식 50,000
김주범 30,000
김주영 150,000
김주희 200,000
김지관 500,000
김지태 50,000
김진구 50,000
김진미 100,000
김태욱 60,000
김태형 40,000
김현정 30,000
김형덕 10,000
김형민 50,000
김형일 50,000
김형호 40,000
김호원 100,000
김홍기 50,000
김화덕 40,000
남현정 1,000,000
류기윤 20,000
문홍철 120,000
박두을 50,000
박미경 300,000
박미현 360,000
박민철 1,742,000
박민하 30,000
박성수 50,000
박성민 30,000
박수근 50,000
박순표 50,000
박승철 60,000
박은규 40,000
박익권 500,000
박정희 40,000
박정희 70,000
박종규 60,000
박종명 500,000
박주은 500,000
박진택 50,000
박준화 100,000
박현모 30,000
방경환 50,000
배성호 50,000
배충현 50,000
배태성 40,000
백두래 30,000
백승업 50,000
백운옥 40,000
백진희 300,000
서윤찬 50,000
서인주 300,000
서지혜 10,000
서태욱 500,000
서화정 30,000
석정희 1,000,000
성영태 40,000

손창원 80,000
손한철 50,000
송승수 120,000
송승훈 10,000
신기범 50,000
신성식 80,000
심재복 120,000
안경란 60,000
엄대영 60,000
여금원 50,000
연합신학대학원 1,000,000
총동창회 50,000
오기혁 360,000
오선녀 50,000
오태훈 10,000
우상욱 50,000
우재호 600,000
유명숙 600,000
유병임 5,500,000
유영수 100,000
유영철 20,000
윤성익 10,000,000
윤인수 40,000
윤진호 100,000
윤창식 50,000
윤현동 20,000
의대 교수장학회 10,000,000
이갑진 500,000
이경택 1,000,000
이기화 5,000,000
이도현 300,000
이명희 40,000
이병찬 300,000
이병철 300,000
이비오 100,000
이상모 60,000
이상미 50,000
이상민 30,000
이상범 100,000
이상인 50,000
이상호 1,000,000
이신주 300,000
이성엽 50,000
이성혜 300,000
이성호 100,000
이수락 40,000
이수영 40,000
이수옥 1,000,000
이순자 200,000
이순주 50,000
이승은 368,204
이승철 100,000
이연옥 50,000
이연주 40,000
이연주 60,000
이영란 1,000,000
이원석 10,000
이원희 40,000
이은연 600,000
이은일 300,000
이은주 500,000
이재준 200,000
이재현 500,000
이재화 2,000,000
이정탁 10,000
이정호 30,000
이정희 500,000
이제홍 478,000
이종만 50,000
이종용 50,000
이준옥 50,000
이지은 200,000
이진백 100,000
이진옥 40,000
이찬우 40,000
이창무 60,000
이창호 50,000
이춘수 80,000
이태형 100,000
이화순 300,000

이흥우 150,000
임덕택타일 50,000
임상홍 500,000
장덕찬 10,000
장은숙 50,000
장은숙 300,000
장준자 300,000
전경미 500,000
전명화 600,000
전상영 50,000
전승선 100,000
전우창 60,000
전준홍 40,000
전창익 50,000
정광수 50,000
정기호 60,000
정성호 500,000
정영신 50,000
정용근 10,000
정윤수 50,000
정인영 40,000
정재호 120,000
정정대 50,000
정진호 500,000
정지훈 100,000
정혁준 40,000
정혜신 20,000
조두영 10,000
조성욱 30,000
조영훈 50,000
조재진 200,000
조지훈 50,000
주광식 150,000
진숙화 40,000
진영희 50,000
차용철 120,000
차장수 500,000
차한신 100,000
천수진 300,000
최광웅 40,000
최상근 20,000
최성주 3,000,000
최성진 60,000
최수천 100,000
최재승 500,000
최주현 60,000
최준경 40,000
최태원 120,000
최희원 50,000
최영환 50,000
하소형 10,000
하준완 200,000
한유덕 180,000
한주영 40,000
현시웅 40,000
홍성갑 50,000
홍희정 10,000
황일식 60,000
황혜정 90,000
소 계 99,668,204

수관기관
주제오타스 3,400,000
(주)모트닉 2,000,000
박병옥 200,000
배상보 120,000
에스닷 50,000
이희화 500,000
장성호 60,000
정규진 500,000,000
세계명화재단 60,000,000
다사교회 2,289,600
대학교회 18,904,610
(주)계명푸에스 2,800,000
주심정디지털정보 50,000
(주)원이앤씨 200,000
주유니에스컴 1,000,000
주유한프린트 35,000,000
주미림 400,000,000
주진양오피스 3,000,000
주평화이앤지 28,120,000

주한국무영사보통신 5,000,000
KT대구본부 4,030,000
국민은행(주) 12,000,000
김&김치과 1,300,000
대구은행 본점 10,000,000
로얄B&B 3,000,000
이목공예센터 60,000
평화산업(주) 26,876,000
평화산업(주) 7,030,000
한영회계법인 10,000,000
현대사무기 20,000
현대산업(주) 10,000,000
화성산업(주) 1,000,000
동아백화점

소 계 1,148,010,210

학부모

박승호 100,000
이대근 50,000
이한희 50,000
정기철 50,000
최상일 50,000
소 계 300,000

재학생

강성래 150,000
곽신이 50,000
권계현 20,000
권태현 20,000
김기영 30,000
김규옥 40,000
김동수 100,000
김란주 40,000
김미향 10,000
김민수 150,000
김민지 30,000
김별이 20,000
김병호 40,000
김선영 50,000
김수라 40,000
김수은 80,000
김이리 40,000
김영희 150,000
김원지 20,000
김은영 50,000
김은주 200,000
김인규 200,000
김제은 50,000
김종말 2,000,000
김지국 50,000
김필순 150,000
김효신 10,000
도정애 50,000
류순하 30,000
박기범 20,000
박영옥 200,000
박유진 10,000
배은미 60,000
배인순 40,000
석태식 200,000
손지애 50,000
송수민 40,000
신명혜 200,000
신정섭 200,000
이름드리팀 1,000,000
안성희 10,000
안영희 200,000
양세미 60,000
유혜영 20,000
윤미애 3,000,000
이경진 30,000
이권덕 40,000
이수경 200,000
이유미 90,000
이유미 50,000
이윤정 20,000
이태중 200,000

정기옥 200,000
정유리 60,000
정희원 10,000
조민정 200,000
조아라 20,000
조은아 60,000
조현진 40,000
지경자 200,000
차재술 160,000
허유미 200,000
허혜민 40,000
형순희 150,000
황주리 20,000
FM Studio 1기 2,420,000
소 계 13,840,000

게명후원의 집

안동희회점담 250,000
예당 500,000
유기초밥 180,000
푸른자랑치하원 600,000
(주)대구코오롱세계야구 300,000
(주)세화우스코리아 500,000
(주)은누리 여행사 50,000
가톨릭안과 500,000
계명안경 250,000
대광부문정비 500,000
대변초밥 800,000
대야방공 250,000
덕현여행사 250,000
드림다모문구센터 150,000
동촌사범칼국수 250,000
마신전통복집 150,000
먹골한정식 300,000
명덕꽃집 250,000
미광스포레스 250,000
불케이든 500,000
부천생리비살 300,000
서강이 세무법인생리 600,000
서울떡집 300,000
성회플로기게든 300,000
세인트웨스트호텔 1,500,000
시민종합동차 정비공장 600,000
아수영 150,000
여해일식 50,000
오목대 250,000
오사카 500,000
우려번지 250,000
원대복집 600,000
원지원 250,000
월정 일식전문점 500,000
유인자명상 애환교육원 150,000
정우초밥 200,000
죽로일식 500,000
한진집 250,000
햇맛숯불생고기촌 200,000

소 계 14,230,000

기타

Thomas Young 909,983
Valeriu Arteni 500,000
김상규 1,726,000
김종규 286,800
문국현 500,000
박남규 2,000,000
박덕중 3,811,000
박덕중 100,000
박상호 100,000
신동철 50,000
온대성 478,000
이상열 1,200,000
전성호 100,000
2007아트페스타 2,150,000
전국 러시아요제 700,000
참가자발동

소 계 14,611,733

합 계 1,544,983,147원



2008학년도 계명대학교 정시('나' 군, '다' 군)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

※ 이 자료는 주요사항으로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내용은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7. 10. 현재)

■ 모집인원 : 총 2,503명 (나군 1,661명, 다군 852명)

※ 모집인원은 편제조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홈페이지 공고)

■ 전형일정

구 분			정 시 '나'	정 시 '다'	비 고
원서접수			2007. 12. 21(금)~26(수)	좌 동	• 전면 인터넷 접수 (유웨이중앙교육) www.uway.com (계명대학교) www.gokmu.ac.kr • 기간중 24시간 접수 • 접수 후 수정 불가
예체능계	특별 일반	실기 면접	2008. 1. 16(수)~17(목)	-	
	인 문 계 자 연 계	특별			
일반		면접 논술	2008. 1. 15(화)	2008. 1. 22(화)	
	1단계 합격자 발표				
합격자발표 (정시:최초)			2008. 2. 1(금) 이전	좌 동	
합격자등록 (정시:최초)			2008. 2. 4(월)~11(월)	좌 동	
최종합격자 발표			2008. 2. 18(월)까지	좌 동	
최종합격자 등록			2008. 2. 19(화)까지	좌 동	

■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비율 (만점: 1,000점, 단위: %)

모집 시기	유형	모집계열 및 모집단위		학생부		수능	실기	면접	논술
				교과	출결				
정시 '나'	일반	인문계, 자연계 (의과대학 제외), 패션마케팅학과 ※1단계 5배수 선발(수능100%)		35	5	50		10	
		의과대학		35	5	50			10
		예체능계 (패션마케팅 학과 제외)	실기전형	20	5	25	50		
			연극예술과	20	5	25		50	
			미디어아트대학, 패션디자인과, 텍스타일디자인학과	35	5	50		10	
	특별	외국어특기자 (KIC, EMU복수학위), DigiPen 복수학위						100	
		FISEP연계전공	면접전형	35	5	50		10	
			실기전형	20	5	25	50		
정시 '다'	일반	인문계 (KIC 제외), 자연계 (의과대학 제외), 패션마케팅학과				100			
		KIC, EMU복수학위				90		10	
		의과대학				90			10
	특별	DigiPen 복수학위, FISEP연계전공				90		10	

■ 지원자격

구분	모집계열(단위)		지 원 자 격
일반	EMU		수능 외국어영역 2등급 이내이면서 수능 2개영역(외국어영역 포함) 평균 2.5등급
	KIC	FIS	수능 외국어영역 2등급
		FIT	수능 2개영역(외국어영역 포함) 평균 2등급
	면접 전형	패션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수능 2개영역(외국어영역 포함) 평균 4등급
		시각디자인, 뮤직프로덕션, 영상애니메이션	수능 2개영역(외국어영역 포함) 평균 3등급(탐구영역은 2과목 반영)
특별	KIC	FIS	• 토플(BT 68점, CBT 190점, PBT 520점), 토익 650점, TEPS 550점, IELTS 5.5점, SAT1(Verbal 450점) 이상인 자 또는 외국(영어권)의 고등학교에서 1개학기 이상 수학한 자
	EMU	경영대학	토플(BT 88점, CBT 230점), 토익 800점 이상인 자
	Digi Pen	게임·모바일 콘텐츠학과	• 수능 외국어영역 및 수리영역 평균 3등급 이내인 자 • 학생부 영어 및 수학교과 석차백분율 23% 이내인 자 • 토플(BT 57점, CBT 163점), 토익 600점, TEPS 476점 이상인 자 • 외국(영어권)의 고등학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수학자 • 전국규모 게임 또는 IT관련 대회 수상자(고교재학 중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국제학대학, 경제통상학부	수능 2개영역(외국어영역 포함) 평균 2등급(탐구영역은 2과목 반영)
	FSEP	패션마케팅, 패션디자인(비실기), 텍스타일디자인(비실기)	수능 2개영역(외국어영역 포함) 평균 3등급(탐구영역은 2과목 반영)
		패션디자인(실기), 텍스타일디자인(실기)	수능 2개영역(외국어영역 포함) 평균 4등급(탐구영역은 2과목 반영)

※ 면접고사 성적 : 면접고사 성적이 면접고사 배점기준의 40% 이하인 자

※ 실기고사 성적 : 실기고사 성적이 실기고사 배점기준의 60% 미만인 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방법

모집단위	반영비율(가중치)					가산비율
	언어	수리'가'	수리'나'	외국어	탐구	
인문계, 패션마케팅	28(1.12)	25(1.00)		30(1.20)	17(0.68)	-
자연계(FT, 의과대학 제외)	25(1.00)	28(1.12)		30(1.20)	17(0.68)	수리 '가' 13%, 과탐 5%
FIT(신설)	25(1.00)	28(1.12)	-	30(1.20)	17(0.68)	수리 '가' 및 과탐 지정
의과대학	25(1.00)	28(1.12)	-	30(1.20)	17(0.68)	수리 '가' 지정, 과탐 5%
예체능계(패션마케팅 제외)	35(1.05) 택			40(1.20)	25(0.75)	-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모집 시기	구 분	학년별 반영비율	교 과		비 교 과 출 결	점수산출 활용지표
			국민공통(1학년)	선택(2, 3학년)		
정시 '나' 군	인문계, 자연계 패션마케팅학과	1, 2, 3학년 동일적용	국, 영, 수, 사, 과, 도	국, 영, 수, 사, 과, 도	사고에 의한 결석, 지각, 조퇴	평균, 표준편차, 원점수 또는 석차
	예체능계 패션마케팅학과 제외	100%		국, 영		

■ 면접고사

가. 면접시간 : 3~5분(KIC 및 EMU복수학위는 10분 이내)

나. 문 항 수 : 4문항

다. 평가요소 및 평가내용

문항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KIC 및 EMU복수학위	KIC 및 EMU복수학위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
1	기본소양	Personality, Etiquette	인성과 가치관(성실성, 책임감, 협동성, 도덕성, 봉사정신, 자아관, 인생관, 세계관)
2	학업소양	지원동기(전공과 관련된 장래희망 → 영어) Pronunciation, Fluency, Grammar, Vocabulary, Listening → 영어	지원동기, 학업계획, 장래희망, 학업관련 기초지식
3	전공소양	Article 문제 제시, Study Plan → 영어 ※ 고사 당일 문제 제시	지원전공과 관련된 지식과 소양 ※ 고사2일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함.
4	종합평가	표현력, 종합사고력, 수학적능력, 장래성	표현력, 종합사고력, 수학적능력, 장래성

■ 논술고사

가. 출제유형 : 통합논술 형

나. 고사시간 : 120분

다. 문 항 수 : 3 ~ 5문항(문항당 400~1,200자, 총3,000자 이내)

라. 평가요소 : 표현력, 이해력, 논증력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함.

대한민국 최초 국제화프로그램
전 교육과정 영어전용학부 **계명 인터내셔널 칼리지_KIC**
“Microsoft IT 전공 신설”

당신의 비전, 당신의 꿈이 클수록
세계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당신의 큰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당신의 큰 꿈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학은 세계와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대학은 당신의 비전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당신의 열정과 무한한 가능성을 위해
계명대학교는 당신의 기회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KIC 1학년 박한준

GLOBAL LEADERSHIP KEIMYUNG UNIVERSITY

Find your future, Explore your career @ Keimyung

- III KIC(전학부 외국인석학 영어강의) Microsoft IT 전공 신설
한국 Microsoft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국제적 IT전문인력양성
- III DigiPen-Keimyung Special Program
닌텐도가 설립한 세계 최고의 게임특성화 대학인 미국 디지털 공대
(DigiPen Institute of Technology)교수진이 직접 강의하는,
싱가폴에 이어 대한민국의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고
게임전문가 양성

- III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과 장학혜택
(EMU/ SNU/ SPbSU/ DigiPen 복수학위, FISEP연계전공,
계명·쇼팽음악원 학·석사연계취득과정, KELI, CLIK, JIKU,
ISEP 국제교환학생프로그램 등)
- III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연구 특별장학, 평화그룹 평화트랙 장학혜택
- III 문화콘텐츠산업인력양성(NURI)사업으로 게임, 모바일콘텐츠,
디자인분야 전문인력양성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